

2023
No.117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 휠 베어링 ● 트랜스미션 베어링 ● Axle Roller 베어링 ● EV모터 베어링 ● 초경량 베어링
- 산업용 베어링 ● Truck&Trailer 베어링 ● Chassis & Suspension ● SWG & SI Module ● AMR 휠 구동 시스템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 (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일진그룹 부회장 이동섭(경영89)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3_ 제9대 이동섭 교우회장 취임사
- 04_ 2022년 결산 보고
- 05_ 임시 상임이사회
- 06_ 정기 고연전
- 10_ 교우의 밤
- 20_ 학위수여식
- 22_ 모교 소식_김동원 총장 취임
- 24_ Young Board 모임
- 26_ 경영대학장 인터뷰
- 30_ 교우동정
- 32_ 교우신간
- 33_ 교우기부
- 35_ 교우기고
- 48_ 학번별 소식
- 65_ 경영대 소식
- 66_ 모교 소식
- 67_ 회비납부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3 통권 제117호 Vol.39

발행일 2023년 03월 28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박창수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as@kubsas.or.kr
홈페이지 www.kubsa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3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월 24일(금) 14:00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인촌기념관
4월 10일(월)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및 취임식	취영루
4월 22일(토) 9:00	제1회 힐링 트래킹	인왕산(청와대 뒷산)
5월 8일(월)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패컬티 하우스
5월 13일(토) 14:00	포럼 (주제 : 경제적 자유)	한강파크빌딩
6월 9일(금) 12시	상반기 골프대회	사우스스프링스(예정)
7월 초	야구부 후원금 전달	총교우회 주관 장소
9월 15일(금) 12시	하반기 골프대회	미 정
9월 23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참살이길
10월 5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패컬티 하우스
10월 26일(목) 18:00	하반기 상임이사회	미 정
12월 1일(금) 17:00	제41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 1F)



89학번 이 동 섭

제9대 경영대학 교우회장
일진그룹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존경하는 경영대학 교우회 선후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도 지나긴 터널의 끝을 보이며
따뜻한 봄의 기운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제9대 경영대학 교우회장으로 선출된 경영 89학번
이동섭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경영대학 교우회를 맡아주신 제8대 정몽원 회장님과
조성호 비상대책위원장께 경영대학 교우회를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저에게 경영대학 교우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크나큰 영광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대 교우회장께서 그러하셨듯이 저는 경영대학
교우회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대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영환경은 더욱더 어렵고 불확실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제 사회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 노멀 시대의 선봉에 고대 경영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교우회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대학은 세계 우수 기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국내 1위의 Business School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항상 존경받고 사랑받는
경영대학 교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경륜과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참신한 기획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유익하고 참여하고 싶은 교우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후배님들의 학업 정진에 보탬이 되는
교우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행사에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선후배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장

이 동 섭 드림

2022년 결산 보고



가 손익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A)	2022년도(B)	증 감(B-A)
총수입(A)	221,664	297,440	75,776
광 고	43,500	56,500	13,000
회 비	170,640	152,400	-18,240
교우의 밤 후원금	0	42,737	42,737
기타(발전기금, 이자 등)	7,524	45,803	38,279
총지출(B)	180,123	286,136	106,013
인건비	78,539	75,203	-3,336
회보 제작비	24,464	28,135	3,671
사업비	16,398	28,754	12,356
교우의 밤 행사비	0	100,392	100,392
사무실 유지비	41,376	43,062	1,686
기부금	0	3,000	3,000
세금과 공과금	6,961	4,590	-2,371
기 타	12,385	3,000	-9,385
당기 순이익(A-B)	41,541	11,304	-30,237

- 코로나 사태 장기화 및 교우들의 관심도 부족으로 회비 납부 실적 저조
 - 회 비 : 2021년 대비 -18,240천원 감소
- 비용 관리 강화로 인건비 절감 -3,336천원
- 교우의 밤 등 각종 행사 실시로 행사비 증가 +112,748천원
 - 2021년 대비 : 교우의 밤 행사비 +100,392천원, 사업비 +12,356천원
 - ⇒ 당기순이익 : 11,304천원으로 2021년 대비 -30,237천원 감소

나 재무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A)	2022년도(B)	증 감(B-A)
자산	629,364	645,473	16,109
보통예금	100,631	57,096	-43,535
정기예금	490,000	550,000	60,000
기 타	38,733	38,377	-356
부채	18,360	23,166	4,806
퇴직급여충당부채	14,542	20,042	5,500
기 타	3,818	3,124	-694
자본	611,003	622,307	11,304
자본금	32,000	32,000	0
이익잉여금	579,003	590,307	11,304

- 예금 잔액 607,096천원으로 2021년 대비 16,465천원 증가
- 이익잉여금 잔액 590,307천원으로 2021년 대비 11,304천원 증가

안녕하세요.

정몽원 회장님 이후 조성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교우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간의 과도기를 마치고 선출된 경영89 이동섭 제9대 경영대학 교우회장 선출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젊고 열정이 있는 회장님의 참신한 기획으로 추진되는 다채로운 행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사전준비모임 당시

◆ 비상대책회의 및 임시 상임이사회 진행과정 (회장 선출과정 및 결과)

일자	행사명	참석자
2023년 2월 2일 (목)	비상대책위원회 사전준비모임	조성호 비상대책위원장 지 청 비상대책위원회 고문 박창수 경영대학 교우회 사무국장
2023년 2월 6일 (월)	비상대책회의(비대면 줌회의) 개최 안건 : 이동섭(경영89) 회장추대 (안전심의결과 전원찬성)	비대위원 11명 전원 참석 (조성호, 지 청, 한호석, 이선용, 이충진, 김상용, 여용동, 최창규, 김지용, 천영석, 김성은)
2023년 2월 23일 (목)	임시 상임이사회 (비대면 진행) 개최결과, 이동섭 제9대 회장 당선 확정 및 취임 (회수율 32.4%로 높은 득표)	부회장단 및 상임이사 336명에게 관련 자료를 등기 우편, 메일발송 후 서면결의서 취합결과 109명 회신, 전원 찬성의결로 회장당선 (회수율 : 32.4%)

◆ 제9대 경영대학 교우회장 소개

- 성명 : 이동섭 (경영89)
- 현재 : 일진그룹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경기결과

	야구	2:8	패
	럭비	57-24	승
	빙구	4:1	승
	축구	0:1	패
	농구	72:64	승

종합전적 3승 2패

고려대 ^승勝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정기고연전
실력도 매너도 앞선 모습 보여줘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 친선경기대회(고연전)에서
고려대가 3승 2패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10월 28일(금), 29일(토)
양일간 2022 정기 연세대학교 · 고려대학교
친선경기대회(이하 고연전)를 개최했다.



첫날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기고연전이 시작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오늘 우리는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코로나로 정기전이 열리지 못했던 지난 3년간 고려대, 연세대 역사에서 이 정기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 간절함을 실감했다.”며 “오랜만에 열리는 정기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젊음의 하루,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목청껏 노래하고 온몸으로 기뻐하며 서로를 뜨겁게 얼싸안기를 바란다.”라고 고연전의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서 연세대 측은 서승환 총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김은경 교학부총장이 대리 참석했다. 김은경 연세대 교학부총장은 “고대 호랑이의 우렁찬 소리와 연세 독수리의 화려한 날갯짓이 3년 만에 잠실의 푸른 잔디와 파란 하늘을 가득 채웠다. 지난 3년간 마땅히 누려할 영광의 순간을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선의 경쟁을 다해서 승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서로에게 걸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서승환 총장의 개막 식사를 대독했다.

다음으로 양교 학생 대표자의 축사가 이어졌다. 함영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연고전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코로나19라는 차가운 겨울을 보란 듯이 떠나보내자. 올해는 벌써 정기 연고전이 57년째 되는 해이다. 그동안 양교가 함께 만들어 온 정기전이라는 문화를 마음껏 누리자. 함께 어깨를 걸며 외치는 응원을 즐기자.”라며 축사를 전했다.

이용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정기전이 개최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대학생활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정기전을 위해 학생회 및 자치단체들, 교내 관련 부서가 빠듯한 준비일정을 소화해 냈다. 정기전은 양교 학생과 학교, 교우회 모두가 하나 되는 붉은 심장이 되어 화합의 정신을 실현하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기에 3년 만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정기전 축사를 마쳤다.





· 야구 | 2:8로 패배. 내년을 기약하다.

개막식 후 11시 30분부터 야구 경기가 시작됐다. 고려대는 먼저 1회 초 김범진(체교21)의 안타로 1점을 획득하고 김응주(체교20)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태 2:0으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5회 초부터 연세대의 공세로 2점을 실점하였고 6회 이후에는 6점을 더 내주었다. 고려대는 9회 말 까지 추가 점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2:8로 경기는 종료됐다.



· 빙구 |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4대1 완승

오후 2시 30분부터는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빙구(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다. 승기는 이미 1피리어드에서 결정 났다. 1피리어드 시작 후 4분 경 강민완(체교19)이 첫 득점을 낸 후 두 골을 추가로 득점하며 3:0으로 압도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2피리어드에서 연세대에게 1점을 실점하였지만 3피리어드에서 고려대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1점을 추가 득점하여 4:1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2022 정기 고연전의 첫 승리는 빙구 경기에서 나왔다.

· 농구 | 위기관리 능력이 빛났다. 72대 64로 승리

고양 실내체육관에서 오후 5시에 농구 경기가 열렸다. 경기시작 전부터 빙구의 승전보 소식에 뜨거운 응원 열기로 실내체육관을 가득 매웠다. 4쿼터에서 김태훈(체교21)의 부상으로 전력에 큰 손실이 생겼지만 경기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박무빈(체교20) 역시 부상입었지만 투혼을 발휘하여 경기를 71:64로 이끌어 승리의 주역이 됐다.



· 럭비 | 57대 24로 압승 이뤘다.

29일(토) 오후 12시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럭비 경기가 열렸다. 전반 11분 김찬주(체교20)의 트라이와 김현진(체교21)의 컨버전 킥이 성공하였고 이후 연세대의 반격이 있었으나 고려대의 맹공으로 25:17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점수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후반전 또한 고려대가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마지막에 최호영(체교20)의 트라이가 성공하여 경기는 57:24로 종료됐다. 2015년부터(2019년은 태풍 복상으로 경기 취소) 시작된 정기전 4연패의 아픔과 아쉬움을 이번 압승으로 깨끗이 씻었다.

· 축구 | 0대1로 힘겨운 승부 끝에 아쉽게 패배

오후 2시 30분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정기 고연전의 마지막 경기인 축구 경기가 열렸다. 고려대는 3-4-3 전술을, 연세대는 3-5-2 전술을 구사했다. 전반전부터 거센 돌파로 경기 분위기를 주도한 연세대에게 고려대는 적극적으로 공격했지만 0:1로 아쉽게 패배하였다. 이번 고연전에서는 최초로 동아리 여자축구 경기가 처음으로 진행되어 관심이 집중됐다. 축구 강호답게 여자축구는 고려대의 승리로 끝났다.

후배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려대 교우회는 고연전 기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였다. 정기전 첫날은 20대, 둘째날은 버스 96대를 제공하여 서울·세종 캠퍼스에서 경기장으로 출발하고 무료주점 행사가 열리는 참살이길로 돌아오기까지 3,000명 이상의 많은 학생들의 이동을 도왔다.

경영대 교우회는 정기전 마지막 날인 29일(토) 저녁 6시 30분부터 참살이길에서 후배들을 위한 무료주점을 열었다. 정기전 마지막 경기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려 참살이길 행사가 다른 해에 비해 늦게 열렸으나 3년 만에 개최된 정기전과 고려대의 종합우승의 열기가 참살이길 행사로 그대로 이어졌다.

조성호(경영80) 경영대학 교우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승명호(무역74) 교우회장, 정진택 총장, 정몽원(경영74) 경영대학 교우회 명예회장·고우체육회장, 김동원(경영78) 차기 총장 내정자 등 내빈이 무료주점 행사에 함께 했으며 많은 고려대 재학생과 교우들, 연세대 재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오랜만에 열린 행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축제를 즐겼다.



제40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F)

경영대학 교우회는 12월 1일(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5층에서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제39회에 이어 3년 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성호 경영대학 교우회장 직무대행, 송명호 교우회장, 정몽원 경영대학 교우회 명예회장, 정진택 총장, 김상용 경영대학장 등을 비롯한 약 500여 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였다.

55학번부터 2023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 19학번까지(재학생 제외) 참석하였으며, 특히 90학번~00학번 이후 교우들이 약 150명 참석하였다.





95학번

조성호(경영80)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로 “경영대학 교우의 밤은 올해로 40돌을 맞이했다. 1981년도 교우회 설립 이래로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경영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그 결과 고려대학교의 대표적인 단과대학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이 되었고 이제는 한국 최고를 넘어 글로벌 명문으로 발돋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끈끈한 교우회를 바탕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이러한 전통은 계속 전승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 래왔듯이 앞으로도 교우님들이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지원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맘껏 즐기시고 교우간의 뜨거운 정을 나누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승명호(무역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로 인해 행사가 열리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마침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가 더욱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마음의 고향 경영대학은 모교의 117년 역사와 함께한 단과대학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가와 사회 각계각층의 인재를 배출해 대한민국 경제 선진화와 국제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명문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모교 경영대학이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까지 교육과 연구의 길에서 헌신적으로 매진해오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성장과 도약이 있기까지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모든 경영대학 교우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진택 총장은 “자유 · 정의 · 진리의 정신을 가슴에 담고 우리 경영대학 교우님들이 각자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고려대학교 학내 교수님들과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많은 추억을 남기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려대학교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상용 경영대학장은 인사말과 더불어 경영대학의 현황과 경영대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사보고 및 비전과 목표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용 학장은 “산학협동으로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된 학위과정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고려대 경영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1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TOP30 경영대학이 되기 위해 여기계신 교우님들께서 많은 응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장학금 전달식



정몽원 명예회장께 감사패 증정

2022년도 장학금 모금 주관학번인 95학번에서는 72,000,000원을 조성하여 경영대에 기탁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2019년 39회 교우의 밤 당시 95,200,000원을 기탁한 94학번(김형인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어 지난 4년간 경영대학 교우회 제8대 교우회장을 역임한 정몽원 명예회장께 교우들의 소통과 모임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경영대 교우회를 이끌어주신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2022년 '올해의 교우상'은 기업가 부문의 박정원(경영81) 두산그룹 회장, 공직자 부문의 최원목(경영79)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교우상'은 폭넓은 대외활동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교우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해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박정원 회장 대신 두산그룹 박상민(한국사90) 전무가 대리수상하였다.

'특별공로상'은 송공석(경영05)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가, '특별상'은 KUBS Ladies(경영대 여자교우회, 회장 이충진/경영81)가 수상하였다.

2부 순서는 (고) 송기철 명예교수,
(고) 정장호 제4대 경영대 교우회장 추
모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함께 했던 시
간들을 기억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케익커팅식 이후 방송인 김현욱(서어서
문92)의 진행으로 만찬시간을 통해 그동
안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과 선배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는 즐거운 분
위기 속에서 가수 홍진영의 축하공연으
로 열기를 더하였다.

다수의 교우 분들이 찬조해서 마련된 경품
추첨 순서에서는 많은 교우들이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이후 교가 및 교호를 제창하며 2022년
임인년 한 해, 바쁘게 달려온 서로를 격
려하고 다시 한 번 교우 간 결속을 확인
하며 모교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하면
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케익커팅식



공연관람



학생회



방송인 김현욱 사회



경품추첨



가수 홍진영 공연

경품 찬조하신 분 명단

격조 높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O	성명	학번	소속 및 직위	찬조내역
1	엄종일	61	(주)럭스산업개발 회장	생활용품 세트 20개
2	이학수	65	(주)엘앤비 인베스트먼트 회장	상품권 200만원
3	허광수	65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	핑퍼터 3개
4	박성훈	66	재능그룹 회장	포켓용수첩 600개
5	최상영	69	영스틸 대표이사	상품권 500만원
6	한대곤	70	한창실업(주) 대표이사 사장	마스크 2300개
7	구자열	72	LS그룹 이사회 의장	프로스펙스 골프화 10켤레
8	김 윤	72	(주)삼양홀딩스 회장	LG 50인치 UHD TV 1대
9	강호갑	74	(주)신영 대표이사 회장	상품권 300만원
10	승명호	74	동화그룹 한국일보 회장/총교우회장	동화마루 시공권 1매, LG공기청정기 1대
11	정몽원	74	한라그룹 회장	현금 200만원
12	조군환	74	우리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	현금 30만원
13	한호석	74	청탐산업(주) 대표이사	현금 100만원
14	김영식	7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삼성 갤럭시 Z폴립 4 (메모리 512GB) 2대
15	안영일	75	(주)신동해홀딩스 회장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16	허경수	75	코스모 회장	고급 와인(샤르도네, 네비올로) 12세트
17	오기영	76	천호기업(주) 대표이사	현금 1,000만원
18	김일용	78	(주)켄비텍 대표이사	광고 협찬 300만원
19	이왕규	78	(주)제너시스비비큐 부회장	BBQ치킨 9000원 상품권 20장
20	임재풍	78	청주개발(주) 대표이사 사장	광고 협찬 500만원, 현금 협찬 300만원, 닥터유 슈퍼 바이탈 크림과 에센스 450개

NO	성명	학번	소속 및 직위	찬조내역
21	정몽규	80	현대산업개발(주) 회장	정선 파크로쉬 숙박 SUITE객실 3매
22	박수근	81	(주)알머스글로벌 대표이사	디어밀크 프리미엄 화장품 세트 20개
23	박정원	81	두산그룹 회장	두산 두타상품권 200만원
24	이충진	81	ALGOVITAL KOREA 대표	알고비탈 화장품 수분크림 20개
25	박기호	84	리커버리자산운용(주) 대표	메디힐 NH투자증권 세트 10개
26	정의선	89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광고 협찬 300만원
27	김평국	89	(주)디유넷 대표이사	강철부대맥주 세트 100개
28	김상무	93	오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마사지건 10개
29	천영석	00	(주)트위니 대표이사	광고 협찬 300만원
30	송공석	05	와토스코리아(주) 대표이사	현금 100만원
31	황세진	07	주식회사 코드박스 리드	물티슈 410개, 메모지 180개
32	김상용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고대 벽걸이 달력 700부
33	이재필	간호 75	여교우회 회장	화환 1대
34	권오섭	지질 78	엘애피코스메틱(주) 대표이사 /경제인회 회장	메디힐 마스크팩 세트 20개
35	김훈식	경제 80	경제학과 교우회장	화환 1대
36	여인창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 대표이사	Grand Kitchen 2인 뷔페상품권 2매







기업인 부문

두산그룹 회장

박정원 교수
(81학번)

박정원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81학번으로, 1985년 두산산업에 입사하여 (주)두산 부회장, (주)두산 지주부문 회장을 거쳐 2016년 두산그룹 회장에 취임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두산은 시대흐름에 맞춘 발 빠른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오면서 한국 기업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지금 두산은 발전설비, 에너지, 건설장비, 로봇, 반도체 등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제품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서 인류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두산은 선진 기업지배구조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등에서 재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두산의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 온 박정원 교우의 리더십은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였을 뿐 아니라 경영대학 모든 교우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공직자 부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 교수
(79학번)

최원목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79학번으로, 1983년 제27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내무부, 재무부를 거쳐 2014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간 공직자로 봉직하였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를 거쳐 2022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법대 교우인 부친의 뒤를 이어 공직에 복무하면서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지원 대책,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및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금융분야 규제완화, 지역특구특례법 제정, 국제전문인력과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예산지원 등 주요정책을 입안 시행하면서 국민경제 발전과 금융위기 극복 및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기조실장 재직 시에는 모교 경영대 특강, 공공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들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행시 합격자 배출 등 모교 사랑에도 애썼다.



특별 공로상

와토스코리아(주) 대표이사

송공석 교수
(05학번)

송공석 교수는 초등학교 졸업 후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늦은 나이에 중·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53세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05학번으로 입학하여 학업과 기업경영을 병행하였으며, 현재 화장실용 자재 생산업체인 와토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 및 한국 육식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경영과 봉사의 분야에서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소속 단체 내외로부터 많은 기대와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수돗물 절약에 탁월한 친환경 1등급 절수설비인 양변기와 수도꼭지를 개발하여 무상 선설치 후 절약된 수도 요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절감과 환경보호에 앞장섬으로써 정부에서 여러 차례 훈·포장 등을 수상하여 고려대학교 교우로서 모교의 명예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재학 중에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평소 교우회 발전과 교우단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별상(단체)

KUBS Ladies

경영대 KUBS Ladies는 졸업 후 상대적으로 모이기 어려웠던 여교우들의 네트워크와 친목을 위해 이충진(81학번) 초대 회장에 의해 2012년 창립되었다.

당시까지 서로 연락이 힘들었던 고학번 여교우 선배님들로부터 재학생들까지 폭넓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시작으로, 교우회에 대한 여교우들의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재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소통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교우회의 네트워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선순환적 조직을 구축하였다.

2020년 기준, 총멤버수는 약 370여 명, 창립 이후 집행부 활동 재학생은 62명이며, 매년 재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연사초대 강연 “드림콘서트” 개최, 멘토링 프로그램인 “굿이브닝”, 교연전 뒷풀이 주점을 운영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에 맞추어 ZOOM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로 전환하거나, SNS를 통하여 학교 생활 정보 제공과 커리어/조언 콘텐츠 “KUBS Women” 연재 등의 활동을 지속해 오며, 활발한 네트워킹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여교우로서의 자부심과 유대관계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23년도

제116회 학위수여식

고려대학교는 116회 학위수여식을 2월 24일(금) 오전 10시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 3,980명, 대학원 2,288명 등 총 6,268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에서 정진택 총장은 “이제 교문을 벗어나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고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꿈을 이뤄내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재학 기간에 경험한 창의와 혁신, 다양성과 포용력, 상호 조화와 협력의 고대 문화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학창 생활의 반 이상의 시간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 보낸 점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우며 학업을 마친 여러분이 더욱 자랑스럽다.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는 시대에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유연하게 새로운 꿈을 세우고 과감한 도전에 나서는 용기를 갖기 바란다. 여러분에게 낯설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더라도 모교에서 배운 창의성과 포용력을 믿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으로 살아가길 당부한다. 여러분과 함께 고려대는 더 크고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은 "졸업과 함께 '고대생'에서 벗어났지만 '고려대학교 교우'라는 지위는 영원히 변치 않고 평생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인류가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이때, 여러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바란다."며 "팬데믹으로 인해 학창시절 미처 다 누리지 못한 선후배, 동기간 따뜻한 정을 교우회에서 넉넉히 가슴 속에 채우고 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키워나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천홍석(전기전자공00) (주)트위니 대표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천 대표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천 대표는 "지난 회사 생활을 하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좌절하지 않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다. 항상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며 실제로 이겨 내왔다. 자신의 한계를 사회가 정한 평균치에 두지 말길 바란다. 나 역시 수많은 실패를 했었다. 성공을 위한 실패는 필수적이고 과정이다.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경영대학(학장=김상용)은 '제116회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을 인촌기념관에서 진행했다. 김상용 학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정진하며 꿈을 키워온 졸업생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며 "경영대학에서 배우고 깨우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영대학 학위수여자는 △학사 423명 △석사 85명 △박사 13명 △MBA 전기 269명 총 790명이다.



고려대학교 제21대 총장 김동원 박사 취임식 열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2월 28일(화) 오전 11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고려대학교 제21대 총장
김동원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팬데믹 이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만연해진 무기력을 떨쳐내야 한다. 우리에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산업혁명의 주역을 양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19세기, 20세기의 교육 방법으로는 21세기형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김총장님이 강조한 것처럼 이제 교육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창의적 융합 교육을 위한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이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교육은 죽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개혁은 총장 혼자 힘만으로 결코 할 수 없으므로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신임 총장과 고대 가족들을 향해 당부했다.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동원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역사를 통해 고려대학교는 이미 국가적 차원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사회에 공헌해 왔다. 이제 고려대는 국가 사회를 넘

어 인류 사회의 미래에 공헌하는 대학이라는 위대한 영광을 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 제21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고려대가 대학 본래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성찰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이겨낼 대학 혁명을 이뤄내고, 대학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것을 희망한다. 우리 고려대가 앞장서 그 길을 만들어 내겠다.”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3가지의 방향성을 짚었다.

첫째로 “대학이 생산하고 전달하는 지식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개방과 융합만이 복잡다기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에 지식의 생산과 흐름을 융합과 통섭의 원칙으로 다시 담아내어 재편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는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더욱 강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식의 생산과 전달의 주체를



더욱 다양화하겠다. 국가의 틀을 넘나드는 지식을 창출하고 전파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을 교수로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다양한 국적의 더 많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해 이들을 세계 선도 리더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연령대가 필요로 하는 세대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특히 고령화 사회 중장년층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겠다. 직업전환 또는 창업에 유용한 학위 및 비학위과정을 개설하고, 각 단과대학·학부별로 사회적 소수자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COVID-19의 등장과 진행은 대면교육의 한계점과 비대면교육의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지식전달 방식의 혁명을 불러왔다. 고려대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전달의 대상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혁신적인 메타버스형 플랫폼을 구축해 학위과정, 마이크로디그리, 그리고 비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의 한

국어 사용자가 고려대의 지식콘텐츠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동원 신임 총장은 “이러한 비전의 성공적인 수행과 더불어 저의 재임기간 중 완수해야 할 큰 과제는 모교 개교 120주년 사업이다. 저는 개교 120주년을 모든 고대 구성원의 힘을 모아 세계 명문 고려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강한 고대’를 기치로 캠퍼스별, 단과대학·학부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연구·교육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 120년 역사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120년을 향해 출발하는 시간이 될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은 “‘대학’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연구해 온 김동원 신임 총장님은 앞으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근본적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혜안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한 신임 총장님의 먼저 존중하고 겸허히 경청하려는 자세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모범을 보여준다. 권위주의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난 효율적 행정은 ‘강한 고대’로 거듭날 바탕이 되어줄 것이며 모교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뛰어난 역량을 두루 갖춘 책임자를 총장으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어윤대 전 총장, 이필상 전 총장, 이기수 전 총장, 김병철 전 총장, 염재호 전 총장, 정진택 전 총장,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다나카 아이지(田中 愛治) 와세다대학 총장, Jennifer L. Mnookin 위스콘신대학 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김동원 신임 총장은 고려대 경영대에서 경영학사 취득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노사관계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지금까지 26년간 고려대 교수로서 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내에서는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경영대학장, 경영전문대학원장 등 많은 보직을 거치며 본교의 다양한 행정을 경험했으며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 고대경제인회 부회장, 정부관련기관 위원, 대기업 사외이사 등 다양한 조직에서 활약했다.

www.koreaackr

think tank Young Board

이동섭 교우회장 초청 Young Board 모임



이동섭 교우회장(경영89) 초청 Young Board 모임 (89학번 이후 교우들과 재학생 집행부 포함된 싱크 탱크 아이디어 T/F모임)이 2023년 3월 8일(수) 저녁 7시에 삼성동 소재 호신각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훈, 김평국(경영89) 교우가 809에서 대표로 참석하였고 최창규(경영90) 909 회장 외 6 명의 909 교우들과 천영석(경영00), 한정훈(경영12) 및 경영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KUBS Ladies 재학생 집행부 대표가 참석했다.

박창수(경영85) 신임 사무국장의 사회로 Young Board 취지와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임이 시작 되었으며 이동섭 신임 교우회장은 인사말로 “경영대 교우회는 과거로부터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 했으며 사회 각층에서 강력한 결속력을 과시해 왔다. 높은 긍지와 자부심, 선후배간에 끈끈한 정,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우회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우간의 결속과 강력한 교우회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다. 젊은 학번도 참여하면서 교우회가 다시 활성화 되고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고 싶은 유익한 교우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규 909 회장(경영90)은 “경영대 교우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동섭 신임 회장님



을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강훈(경영89) 교우는 “이동섭 회장님을 도와서 ‘잘 지은 밥처럼’ 교우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패기 넘치는 건배제와 참석자 전원이 자기 소개 및 근황소식을 나누었고 경영대 교우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발언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동섭 교우회장은 “교우들께서 좋은 제안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활약해주시고 많은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서포트 하겠다.”며 오늘 모임의 소감을 전했다.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김상용

경영대학(원)장님

Interview

1. 2022년 11월 1일 경영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 ■ ■ ■

무한한 영광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려대 경영대학이 마주한 변화와 기대감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개인 활동을 선호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사회 활동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관계의 단절, 개인화가 일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오프라인에서도 연결되고 관계가 복원되어 가는 전환점에서 경영대학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영예로움이 교차합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체감하며 단절된 관계와 일상을 회복시켜내는 것이 경영대 학장으로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경영대학이 흥 있고, 신나는, 역동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작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진적으로 완화에 따라 대면수업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는 학생들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요? 대면수업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하시는 바는 어떻게습니까?

■ ■ ■ ■ ■

지난 1월 30일로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서 4년 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

니다.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생기있는 얼굴을 보며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3년의 일상은 2019년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강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일부 교수나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3년간의 온라인 강의 경험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운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2023학년도 신학기 강의의 80% 이상이 대면강의로 진행됩니다. 대면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가진 젊음과 패기가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학교육에서 비대면, 대면이라는 강의의 형식이 학업 성취도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면강의에서 누릴 수 있는 교수와 제자간, 교수들간의 친밀감과 토론의 활기,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만들어 가는 추억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3. 마케팅을 전공하셨는데, 앞으로 2년 동안 학장님의 전공을 살려서 어떠한 비전과 목표로 경영대학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 ■ ■ ■ ■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Liberal, but Disciplined”, 즉 자유롭지만 원칙은 지키자는 것인데요, 원칙은 지키되 융통성과 유연성을 갖자는 뜻입니다. 경영대학 구성원들의 팀 정신(Team Spirit) 또한 활발하고 신나지만, 늘 원칙은 지키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원칙과 유연성을 갖고 운영하려면, 과거부터 해왔던 많은 절차와 방식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취임 후, 카카오톡 친구채널과 Linkedin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각각 새로 개설하고 재학생 및 교수들과 소통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의 마케팅은 이러한 SNS를 포함하는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게

경영대학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영대학이 고려대의 진정한 리더로서 거듭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을 넘어서 고려대의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 발전하는 모습을 저는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시도해 연구 및 교육을 활발히 이끌겠습니다. 경영대학을 융합 학문의 리더로 자리매김 시키고,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기준에서 자유로운 정신과 정의로운 사명감에 기반한 진리탐구가 가능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대를 고대답게 하는 영원한 가치 ‘자유’, ‘정의’,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마케팅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K-컬처’를 꼽을 수 있죠. 이러한 현상과 관련한 비즈니스가 무궁무진하게 생겨나고 있는데도 고려대 경영대학에서 특별히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영학과 타 사회과학,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 등 다른 학문영역과의 융합이 시장에서는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신속하지도, 충분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대한 공통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대학이 분명히 세계 어디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2030년까지 아시아 1위, 세계 30위권 경영대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환경의 빠른 변화속도에 발맞추는 노력을 기울여, 앞서 예를 들었던 ‘K-컬처’ 그리고 Data Science에 기반하는 Business Analytics, 전 세계가 주목하는 ESG와 같은 주제 분야에서 research hub로서 경영대학은 우리의 팔로워 및 챌린저와의 격차를 벌려 봐야 할 것입니다.





4. 김상용 학장님께 고려대학교란 어떤 의미입니까?

■ ■ ■ ■

2001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부임하여 올해로 2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118년의 역사를 가진 고려대학교의 일원으로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1905년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는 일제강점기,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에서 민족의 등불로 그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저 역시 그 역사에 동참하며 제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한마디로 제게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제 청춘(?)을 불태워서 경영대학을 1등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큼니다.

KAIST 교수를 퇴직하고 고려대학교에 부임해서 두 번째 학기에 경영대학원 유통전문경영자과정 주임교수라는 보직을 맡아 고려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마케팅전공 주임교수도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역임하면서 분야 발전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현대자동차경영관을 완공할 때에는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서 일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에는 대외협력처장이라는 보직을 맡아서, 고려대학교의 마케팅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고려대학교 발전기금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그 후 3년 동안에는 경영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AMP)의 주임교수를 맡아 경영대학의 대표적인 비학위과정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 학장직

을 맡기 직전에는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KU Press) 원장으로서 훌륭한 도서출간을 통해 고려대학교와 대한민국의 학술 및 교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깊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2022년도와 2023년도 고려대학교 달력과 다이어리를 제작 총괄했었고요. 이제 저는 현재 경영대학 학장으로서 우선적으로는 경영대학을 그리고 경영대학이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경영대학과 고려대학교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5. 경영대 교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 ■ ■ ■

23년 전 제가 고려대학교에 부임할 때의 경영대학과 비교하자면, 지금의 경영대학은 교수님들의 노력과 지원 덕분에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경영대학의 발전은 '하드웨어'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영본관, LG-POSCO경영관, 현대자동차경영관이라는 세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미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연구와 교육 콘텐츠에 대한 질적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들이 더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세계적인 연구의 중심(hub)이 고려대 경영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앞선 예에서, 'K-컬처'산업에 대해 덧붙이자면 실제로 많은 해외 학자들이 '한류'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고려대로 많은 문의를 합니다. 경영대학도 이러한 흐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류 산업에 대한 연구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많을 것입니다. 경영대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특강에도 모시고, 재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데이터를 쌓아 교수님들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되려면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필요합니다.

주요 이력사항 및 저서목록

학 력

- · · 경영학 박사 Ph.D. (1995년 9월), Duke University.
- · · 경영학 석사 M.S.I.A. (1990년 5월), Carnegie Mellon University
- · · 문학사 B.A. (1987년 8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행정경력

-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2022년 11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 ·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장 (2021년 3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 ·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 주임교수 (2016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
- · ·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장 (2014년 2월 1일 - 2015년 2월 28일)
- ·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2013년 7월 1일 - 2014년 1월 31일)



교육경력

- · · 교수 (2001년 3월 1일 -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 · · 교수 (1998년 9월 1일 - 2001년 2월 28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 · · 교수 (1996년 3월 1일 - 1998년 8월 31일)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학회 경력

- · ·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2019년 6월 - 2020년 5월)
- · ·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2017년 4월 - 2019년 3월)



주요저서 목록

- · · "마케팅원론 ABC - 인공지능, 빅데이터, 고객가치", 공저, 학지사, 2022. 9.
- · ·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위한 마케팅조사", 공저, 도서출판 창명, 제2판,
- · · 2019. 4. (제1판 2017. 2.) 외 10여권

■ 교우동정



구자열 (경영72)

2023년 2월 10일
구자열 교수가
모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윤창운 (경영77)

2023년 2월 15일
윤창운 교수가
한국건설경영협회장에
선출되었다.



백종일 (경영81)

2023년 1월 2일
백종일 교수가
전북은행장에
취임하였다.



박창수 (경영85)

2023년 2월 1일
박창수 교수가
경영대 교우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수형 (경영86)

2023년 1월 27일
김수형 교수가
케이리츠투자운용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손정현 (무역87)

2022년 10월 31일
손정현 교수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



정재연 (경영87)

2023년 1월 14일
정재연 교수가
한국세무학회장에
선임되었다.



이동섭 (경영89)

2023년 2월 23일
이동섭 교수가
제9대 경영대학
교우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박상균 (경영91)

2022년 11월 24일
박상균 교수가
LG CNS D&A사업부 전무로
임명되었다.

■ 교수동정



김동원 (경영78)

2023년 2월 28일
모교 김동원 교수가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상용

2022년 11월 1일
모교 김상용 교수가
경영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권성우

2022년 11월 1일
모교 권성우 교수가
경영대학 교무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경훈(경영78) 2022년 11월 26일 장남 진수 군
박병근(경영79) 2023년 1월 8일 차녀 수진 양
백종일(경영79) 2023년 4월 29일 아들 하영 군
이승재(경영79) 2022년 12월 18일 아들 종윤 군
조정환(경영78) 2022년 12월 18일 장녀 혜인 양

정동규(경영80) 2023년 2월 11일 장남 준선 군
전영민(경영03) 2023년 1월 14일 본인 결혼
서수양(경영09) 2023년 2월 25일 본인 결혼
정석현(경영09) 2023년 1월 14일 본인 결혼
노범래(경영09) 2023년 4월 1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정규(상57) 2023년 3월 17일 본인 별세
정규선(상60) 2022년 11월 15일 본인 별세
(통보받은 날짜)
김순구(경영61) 2022년 12월 7일 부인상
김승유(경영61/명예회장) 2023년 2월 7일 빙부상
김문기(경영72) 2022년 12월 13일 모친상
정동원(경영74/명예회장) 2022년 12월 30일 빙모상
강병구(경영78) 2022년 11월 27일 모친상
권오상(경영78) 2023년 2월 12일 모친상
김광희(경영78) 2022년 11월 6일 부친상

오대용(경영78) 2022년 12월 9일 모친상
윤면식(경영78) 2022년 12월 31일 빙부상
권길주(경영79) 2022년 12월 6일 모친상
김진호(경영79) 2022년 12월 8일 빙부상
박병근(경영79) 2023년 2월 14일 빙부상 / 2023년 3월 11일 모친상
안태용(경영79) 2023년 1월 6일 빙모상
윤태웅(경영82) 2022년 12월 9일 모친상
민대홍(경영95) 2023년 1월 22일 모친상
박도현(경영96) 2023년 3월 12일 부친상
신애진(경영17) 2022년 10월 29일 본인 별세

Coréana

코리아나 화장품 유상옥 회장, 보관 문화훈장 수훈

Coréana [2022.10.21.] (주)코리아나화장품(대표이사 유학수)의 설립자이자 문화경영자인 송파(松坡) 유상옥 회장이 21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2022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보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지난 2009년 옥관 문화훈장을 수훈한데 이은 두 번째 수훈이다.

유상옥 회장은 옥관 문화훈장을 수훈한 이후에도 문화경영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 화장 문화의 보존과 연구, 교육 활동은 물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민들을 위해 2013년 청양과 하남 지역 전시를 시작으로 9개의 지역에서 소장품 전시를 진행했다. 여기에 꾸준한 유물 기증으로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환원 활동의 모범적 소임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유 회장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의 힘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믿음 하에 한국의 화장문화 관련 유물과 미술품을 수집하였다. 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03년 국내 최초의 화장박물관인 '코리아나 화장박물관'과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는 '코리아나미술관'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씨(space*c)를 설립하여 20

년째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은 국내 전시 외에도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 <한국의 화장문화>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의 화장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코리아나미술관에선 매년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해 '2006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고, '2013년 기획전 부문 올해의 전시 TOP 10'에서 1위와 4위에 선정되는 등 미술계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한국의 모자 문화를 소개하는 기획전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10월 21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재개관 기념전에 초청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 문화기관과 교류하며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 회장은 2009년 개인 소장 유물 200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모교인 덕수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 청양군 백제역사문화체험박물관 및 농업박물관, 코리아나 화장품 법인 등에 총 5400여 점의 개인 소장 유물 및 미술품을 기증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발전 및 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 나눔 경영과 사회 환원 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서명 | 부모의 사랑은 늘 목이 마르다.

저자 | 김종순 (경영62)

출판사 | 다할미디어

출판일 | 2022년 11월 10일

코오롱을 거쳐 대동기업을 운영했고,
‘도림천 아름답게 가꾸기운동’ 본부장을 지낸
김종순 교우의 자전적 에세이가 나왔다.
육남매의 어머니로서 가슴에 담아둔 생각을
글로 옮겼는데, 김 교우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녀들을 키워낸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역할로만 한정되지 않는
김 교우의 다채로운 삶을 엿볼 수 있다.



서명 | 극락조를 기다리며

저자 | 허창무 (상65)

출판사 | 서정시학

출판일 | 2022년 11월 30일

시 전문 월간지 ‘현대시’를 통해
1993년 등단한 허창무 교우가
‘어떤 봄날 산에 올라’(1993), ‘선인장’(1996)이라는
두 권의 책을 낸 후 25년 만에 낸 세 번째 시집이다.
총 4부 59편의 시로 이루어진 시집은
숲 생태 해설가답게 자연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시가 대부분이며, 후반부에는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고심과 좌절을 담고 재기하려는
작가의 인생에 대한 추억도 담겨있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는 글로벌 최고 명문으로 발전하기를”



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경영89/제9대 경영대학 교우회장)이 모교 경영대학을 위해 써달라며 1억을 기탁했다. 고려대는 2022년 10월 17일(월) 오후 3시 모교 본관에서 '경영대학 발전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이동섭 부회장은 "고려대 경영대학은 지금의 나라를 있게 한 마음의 고향이다. 고려대 117년의 역사와 함께한 경영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고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의 명문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고려대의 눈부신 성장을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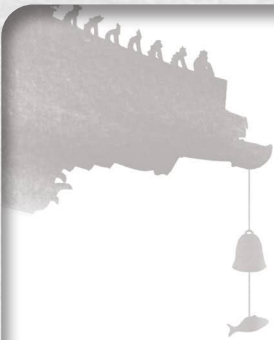


‘매직 히포’란 수식어로 화려한 선수시절을 보냈던 현주엽 전 농구감독(경영94)이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는 3월 3일(금) 오전 11시 ‘현주엽 교수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식’을 가졌다. 기부식에서 현 교수는 “마음의 고향인 고려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새 시대를 맞이한 고려대의 눈부신 성장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 정기 고연전의 전승과 더불어 고려대의 건승을 빈다.”



전창진 전주KCC이시스 감독(경영82)이 고려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다. 고려대는 3월 6일(월) 오전 11시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 '전창진 전주KCC이시스 농구감독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기부식에서 전 감독은 “모교의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2023 정기 고연전의 전승과 더불어 고려대의 건승을 빈다.”라고 밝혔다.



무신불립 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존립 기반이 없다

신뢰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신뢰, 직원의 신뢰, 사회의 신뢰, 주주의 신뢰, 협력업체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방면이라도 신뢰가 없다면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 즉 경제다. 둘째는 자위력, 즉 군대다. 셋째는 백성들의 신뢰다.” 공자가 말하는 경제, 국방, 사회적 신뢰는 요즘 정치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조건입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어떤 것을 먼저 빼야 합니까?” 공자는 군대를 먼저 빼라고 합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또 하나를 부득이 뺀다면 어떤 것을 먼저 빼야 합니까?” 공자는 경제를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부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 왔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의 존립은 불가능한 것이다.” 인류 역사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고, 힘이 없어서 죽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죽는 것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한 조직이 마지막까지 존립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뢰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民無信不立 민무신불립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는 존립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는 신뢰의 부족에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신뢰는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망해서 돈이 없고, 힘이 없더라도 신뢰만 있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공자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3분 고전(박재희 지음)에서 인용

봄내음

이득주 경영55

前) 서울사세청 (現 서울지방국세청)
前) 재무부 (現 재정경제부)에서 근무

역서 | 이란의 공기업, 공기업의 재무관리실제와 중앙정부예산과의 관계(UN자료)



봄이 시작되면 봄꽃과 봄나물이
봄을 느끼게 한다.

시골고향집 주위에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봄꽃과 봄나물들이 좀 있다.
1995년에 평생 직장생활을 하던 서울 광화문
및 종로일대와 주거지인 강남 삼성동을 등지고
서울을 떠나 올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가까이 된다.

나는 서울이 싫어서 훌훌 털고 미련 없이
고향의 옛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을 다시 털고 새집을 지을까 하다가 한옥
목재가 아까워서 집 짓는 만큼의 돈을 들여
대수리를 하고 살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부터 봄이면 이곳저곳에 꽃씨를
뿌리고 꽃을 심기 시작했다. 몇 해 전부터
형형색색의 꽃이 피기 시작했다. 더불어 뒷산과
신작로 주변의 벚꽃도 뒤질세라 봄꽃잔치에
뛰어들어 화사한 기분을 선사한다.

맨 처음 2월초에는 홍매화가 꽃을 피워가며
새빨강게 열정을 퍼부어 댄다.
뒤이어 뒷산에 들벚과 신작로 벚나무가
눈부시게 환한 빛을 발한다. 다음에는 집안에

있는 영산홍이 피고 수선화가 노랑꽃으로 뿔낸다.

봄날의 먹거리로써 나싱갱이(냉이)가 입맛을
돋우어준다. 이어서 산두릅에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고들빼기, 구기자했순,
오가피했순 등이 나물무침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해준다. 여기에 더하여 부드럽게 자란
숙이 특유한 향으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봄나물 구실을 한다.

이렇게 봄이 오고 지나간다. 우리의 먹거리인
쌀을 생산하려고 특유의 향을 피우고 요란한
농기계 소리가 계속 울려댄다.
서서히 바깥 냉기가 가시니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라나는 못자리의 커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이양 준비를 하고 있다. 4월 초부터 우리
보다 추운 경기도 북쪽부터 서서히 빈 눈에
모심기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집 주위도 지하수 공급으로 논바닥을
적셔가며 갈고 쓰리고 모심기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도시와
농촌 우리 모두에게 식량을 준비해 주는 일이
부산하다.

풍성한 한해가 되도록 알맞은 기온과 비를 내려
주시기를 빌 뿐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황 인 강
상61·수필가



피부의 땀샘에서 분비되는 배설물이 땀이다. 신체활동으로 더워진 체온을 식혀 주기 위해 밖으로 나온다. 땀이 나올 때 노폐물이 동시에 배출되어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다.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언젠가 고교동창 친구들과 산행을 했던 때의 일이다. 북한산을 오르기 위해 평창동에서 출발했다. 한 여름이라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갔다. 친구들은 자주 산행을 해서인지 속도가 제법 빠르다. 나도 웬만한 산행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게 잘도 나아간다. 나는 산행 때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힘들어도 기를 쓰고 걷는다. 그래서 남들보다 크게 앞서가지도 않지만 처지지도 않는다. 친구들 대부분은 대남문까지 한 번 쉬었다가 올라간다. 나는 두 번 정도는 쉬면서 올라가야 제대로 된 산행을 했다고 나 혼자만의 물을 지킨다.

사람마다 걷는 스타일이 다르다. 내 경우는 처음에는 천천히 걸으면서 자주 쉬는 편이다. 시작을 여유 있게 해야 긴 코스를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날은 한 번만 쉬고 계속 걸었다. 정상 가까이 갈수록 가파른 계단의 연속이다. 그야말로 험레벌떡 결사적으로 오르니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다. 드디어 첫 번 목표인 대남문에 도착했다. 그때 누군가 “자네 백만 원짜리 보약 먹었네”라는 소리가 들렸다. 쏟아지는 땀을 닦으며 힘들게 올라온 나를 보고 한 말이다. 몸속에 있었던 많은 노폐물이 나왔으니 좋겠다는 말인 듯하다.

공짜로 큰 돈 가치의 보약을 들었으니 한 턱을 내라는 말을 또 옆에서 거든다. 그래서일까. 몸이 가뿐해지고 정신도 맑아짐을 느낀다. 땀은 운동을 해서 흘리는 경우도 있고, 노동이나 높은 온도에 의해서도 흘린다. 어떤 때는 긴장을 하거나 당황하여 흘리는 진땀도 있다. 어떻든 몸에서 필요에 따라 분비되는 땀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정설이다. 땀에 얽힌 사연은 나를 엄숙하면서도 진중하게 만든다. 사람에 따라 땀이 많은 체질이 있다. 내가 그 부류에 속하는 것 같다. 힘들어서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율신경에 긴장이 생겨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 곤욕스러운 때가 많았다.

중학생 시절 많은 학생들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이지 싫었다. 모처럼 반 전체학생 앞에 나서면 앞이 캄캄했다.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흘릴 때가 많았다. 땀샘이 넓어서인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땀아도 계속 나온다. 손수건으로 계속 땀아내면서 민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직장에서는 사장과 임원 그리고 부서장 앞에서 직책상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도 땀을 심하게 흘려 당황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래도 어찌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해당되지 않을까싶다.

친구의 권유로 스피치 교육하는 곳을 찾았다. 대중 앞에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3분 스피치를 하는 한국어문화원이다. 경험이 쌓이면 강단에서의 공포심이 없어져 땀을 흘리는 창피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통하게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하고 나니 많이 좋아졌다. 스피치 공부에 투자한 보람이 있었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를 보는 경험이 많았음에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식은땀은 참으로 난감한 일 중의 하나다.

10여 년 전, 아침마다 혜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교정을 거쳐 수영장에 간다. 그 학교는 축구로 명성을 날린 차범근 감독을 배출한 학교다. 새벽부터 축구부와 유도부가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것을 본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보면서 그들 중에 언젠가는 국가의 대표선수나 유명 프로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땀방울이 모여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함을 느낀다. 사력을 다해 질주하는 마라톤선수나 90분 동안 땀방울을 흘리며 뛰는 축구선수들, 링 안에서 불꽃 튀기는 권투선수의 비지땀을 보며 땀의 가치를 생각해본다.

땀방울은 진정 모두의 삶에서 귀한 보석이다. 어떤 경우든 땀을 흘려야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성취가 어디에 있겠는가. 4년마다 개최되는 올림픽이 있기 전, 선수들은 선수촌에 입소하여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는다. 그들의 땀방울을 TV에서 보면서 믿음직스러움을 느끼지만, 마음 한 구석에선 애잔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나만의 감성일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리라.

무언가 이루고자 한다면 값진 땀을 기꺼이 뿌려야 하리라. 성공이란 금자탑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등산에서의 작은 땀방울에서도 배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탈리아반도 여기행기 6



허창무

상65·시인·수필가
(前)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現 주택금융공사 전신) 임원 역임

11월 30일(목) - ②

우리는 점점 부두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황금의 탑(Torre del Oro)과 은의 탑(Torre de la Plata)으로 왔다. '황금의 탑'은 1220년 이슬람교도가 과달키비르강을 통과하는 배를 검문하기 위해 세운 정12각형의 탑이다. 강 건너편에 '은의 탑'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두 탑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세비아에 들어오는 배를 막았다. 1519년에 여기서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를 떠난 것과 관련하여 현재 해양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텔모 궁전은 항해사들의 수호신인 산텔모의 이름을 따서 1682년 성벽 바깥쪽에 지은 궁전이다. 세비아 바로크양식의 상징물 중 하나인데, 지어질 당시에는 항해사나 선박 조종사 등 고위 항해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항해학교로 지어졌다. 그런 만큼 대항해시대를 열려고 했던 당시 스페인사람들





의 의지가 엮보이는 건물이다. 이후 신학교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안달루시아 자치정부 대통령의 본부로 사용된다. 앞으로 보게 될 마리아 루이사 공원은 원래 이 산텔모 궁전의 일부였는데, 공작부인이 세비아에 정원을 기증하여 그 이름이 붙었다.

왕립조선소는 13~15세기에 운영된 카스티야왕국과 레온왕국의 연합체인 카스티야연합 왕국의 조선소이다. 갈레라선(옛날 노예나 죄수들에게 짓게 한 2단으로 된 노가 달린 돛배) 등을 제조해 상업과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비아는 과달카비르강을 따라 선박들이 몰려와 도시가 융성하고, 인구가 늘어 자연스럽게 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선소는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또 식민지 시대 전함을 만드는 등 스페인의 황금기를 맞는 데도 필수적인 기관이었다.

대성당과 그 밖의 몇몇 명소를 둘러보고 마리아 루이사 공원으로 향했다. 산텔모 궁전의 정원이었다가 1893년, 소유주였던 마리아 루이사 페르난다 공작부인이 세비아에 기증하면서 시 소유가 되었고, 1929년 이베로아메리카(이베로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대륙의 나라들을 말한다.)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재단장하여 공원이 되었다. 지금은 세비아를 대표하는 공원이자 스페인의 최상급 공원의 하나로 꼽힌다. 우선 140만 평이라는 공원의 규모에 놀랐고, 다음에는 그 아름다움에 경탄했다. 이 정도의 크기라면 원 시가지의 삼 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가이드의 말이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택 관광으로 마차를 타고 공원을 돌았다. 다 도는데 약 40분 정도 걸렸다. 마차 한 대에 네 사람이 타는데, 옛 귀족들도 이와 똑같은 마차를 탔다고 한다. 말하자면 귀족들의 교통수단을 타고 잠시 귀족행세를 해보았다. 남부지방이라 아열대 지방의 식물들이 마음



세비아 황금의 탑



산텔모 궁전의 외부

마리아 루이사 공원





옛 귀족 마차 타기

껏 성장하여 시의 허파가 되고, 시민들의 산책로와 휴식처가 됨은 물론이요,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하고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감싸주는 공원이다. 겹겹이 줄지어 선 종려나무며, 도대체 몇 사람이나 두 팔을 벌리고 보듬어야 맞닿을 수 있을까, 가늠하기 어려운 후박나무며, 연못의 무성한 수련, 그리고 연못가의 아담한 정자 등이 시선을 끌고, 1521년 멕시코의 아스테카 왕국을 정복한 에르난 코르테스와 1532년 페루의 잉카제국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이름을 딴, 두 개의 넓은 가로수길이 공원 내부에서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산책로를 이루는데, 그 사이사이로 수많은 조각상이며 분수대가

어우러져 지상의 낙원을 보여주는 것 같다. 공원의 아메리카광장에는 세비아 고고학박물관이 있어 구석기시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유물을 볼 수 있으며,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를 기념하여 세운 500주년 기념탑이 있다.

세비아대학으로 왔다. 이 건물은 원래 왕립 담배공장이었는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서 카르멘이 기병인 돈 호세를 유혹했던 곳이 바로 이 담배공장 앞이다. 19세기에 전 유럽 담배의 4분의 3을 생산했던 이곳은 담배를 만드는 여공이 무려 1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카르멘도 이 여공 중의 하나였다. 담배를 스페인에 맨 처음 도입한 사람은 바로 콜럼버스였다. 그가 도입한 담배는 스페인왕국의 부의 원천이 되었고, 그것은 점차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스페인광장의 탑

세비아에서 낮 동안의 마지막 관광 여정은 스페인광장이었다. 스페인광장은 1929년 이베로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쓰기 위해 건축가 아니발 곤잘레스가 만들었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로마 등지에 있는 같은 이름의 광장중에서도 세비아의 광장이 크고도 아름답다. 반달 모양의 광장을 둘러싼 건물 양쪽에 탑이 있고, 옛 4개 왕국을 상징하는 4개의 문이 있다. 건물 앞에는 이베리아반도를 관통하는 타호강을 모방하여 모형 강을 만들고 그 위에 4개의 다리를 놓았다. 여름에는 이 모형 강에서 뱃놀이를 한다고 한다. 광장 쪽 건물 벽면에는 스페인 58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58개의 벤치가 들어서 있고, 스페인 각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타일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다. 또 58개 도시의 휘장과 지도, 역사적 순간들이 타일로 표현되어 있다. 이곳은 조지 루카스의 세계적인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2’의 배경이 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세비아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스페인광장 아라베스크 문양의 타일이 깔린 벤치에 홀로 앉아 정신없이 돌아다닌 낮 동안의 일정을 돌아보았다.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여기저기 휘젓고 다녔다. 바로 앞,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마리아 루이



스페인광장

사 공원의 울창한 숲에 차가운 어둠이 쌓여 차별 없는 세계, 평등한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협소하고 알팍한 우리나라의 공원이 떠올랐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공원이 없을까? 이들 선대의 사고와 우리 선대의 사고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대제국과 반도 국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 나는 오래도록 반추했다. 이 장엄한 유산,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감동을 주는 문화유산을 보니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 창조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적이다.

관람 시간이 예정되어있어 저녁 식사 전에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갔다. 세비아에서 가장 큰 극장이다. 일행 중 몇 사람은 텔레비전 세계기행에서 보았으니 그게 그거지 별다를 게 있겠느냐고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짧았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았던 플라멩코는 단조로웠으나, 오늘 저녁에 본 플라멩코는 훨씬 더 다채로웠다. 오페라 〈카르멘〉에서 매혹적인 카르멘이 입에 커다란 꽃을 문 채, 기병인 돈 호세를 유혹하며 부르는 격정적인 아리아 ‘하바네라’며, 투우사 에스카밀로가 파스티야 주점에 들어와 투우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투우사의 노래’며, ‘카르멘 서곡’이며,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 ‘나는야 이거리의 만능 일꾼’,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등의 아리아와 음악에 따라 전개되는 춤사위가 관객을 압도했다. 그들의 음악을 여기에 어찌 다 열거할 수 있을까? 혼신의 열정으로 전신을 뒤흔드는 무용수들의 춤은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흡인하는 호소력이 있었다. 무희들의 풍만한 육체, 개성이 넘치는 얼굴, 그리고 남자무용수들의 균형 잡힌 몸매에서 뿜어 나오는 활력과 열기가 무대 아래의 관객에게까지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적인 무용과 민요에 집시 춤의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한다. 단조로우면서도 경쾌하고, 경쾌하면서도 어딘지 좀 서글프게 하는 플라멩코의 캐스터네츠 박자가 극장을 나와서도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다. 캐스터네츠는 스페인어의 카스타니아(밤나무의 열매, 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2월 1일(금), 오늘은 새벽 5시 30분 기상 뱀이 울렸다.



플라멩코



포르투갈 국기

6시 30분 소식, 7시 출발이다. 세비야를 떠나 다른 나라인 포르투갈로 가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아디오스 스페인, 아디오스 세비야', 나는 여기 와서 처음 이 나라의 말로 작별을 고했다. 그동안 정이 들었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 석별의 정이 잔잔한 물결을 이루었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포르투갈의 성지 파티마로 달린다. 아득한 지평선 너머로부터 오렌지빛 여명이 다가온다. 카스테레오는 타레가의 '알람브라궁의 추억'을 구슬프게 연주한다. 거기에는 경쾌한 플라멩코의 박자마저 처연하다. 고속도로 양옆으로는 정원수처럼 머리를 손질한 키 낮은 반송의 숲이 간단없이 이어진다. 앞으로 이틀간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나라는 전국이 마치 정원을 가꾸듯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다. 그 주역은 단연 아기자기한 반송이다. 8시가 지나자 원을 그리며 비로소 드러나는 회청색의 대서양이 포르투갈의 항해 역사를 은은히 내비친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국경선을 지날 때 가이드는 출입국신고서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권을 모두 내놓으라고 했다. 1~2분이 지났을까, 우리가 여권을 허겁지겁 꺼내는 사이 "이제 포르투갈에 입국했습니다."하고 그는 웃지도 않고 능청을 떨었다. 일순 버스에는 폭소가 터졌다.

포르투갈의 집들은 벽체는 하얗고 지붕은 빨갛다. 포르투갈인들이 나가사키를 통해 일본에 전파한 집들처럼 마치 성냥갑을 보는 것 같다. 포르투갈에서는 유명한 포도주 포트와인(또는 포르투와인)이 생산된다. 보통 와인은 12°인데, 포트와인은 19°이고, 보통 와인의 마개는 코르크인데, 포트와인은 병뚜껑마개다. 병뚜껑마개의 이점은 마시다 남은 와인 병을 병마개로 막아놓고 여러 번 마실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래도 도수가 높아 알코올 증발이 되지 않는다.

그 사연은 이렇다. 영국은 오늘날 포도와인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예전에는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프랑스 보르도 포도주를 수입했는데, 전쟁이 발발하여 교통이 막히자 대서양을 통하여 도착할 수 있는 지리상의 이점으로 포르투갈 와인을 수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입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일이 걸리자 도수가 낮은 와인이 식초로 변해 버려 도수가 높은 와인을 생산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의 인구는 약 1천만 명, 면적은 남한 정도 되고, 국민소득은 약 2만2천만 불(2015년 기준)이다. 주산업은 목축업과 수산업이고, 코르크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코르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면 신발, 물건받침대, 가죽대용의류 등 다양하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코르크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을 보았다. 코르크나무 껍질을 벗긴 자리는 적갈색이다. 코르크가 재생하려면 6년 정도 걸린다고 가이드는 설명했다. 그런데 생태학도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무껍질을 벗기면 대개의 나무는 체관부와 물관부가 함께 떨어져 나가므로 나무는 죽게 되는데, 코르크나무는 재생을 거듭하니 신기한 일이다. 코르크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므로 우리나라의 굴참나무처럼 껍질이 두꺼워 껍질을 벗겨도 체관부와 물관부는 그대로 붙어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재생이 가능할 것이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후추를 구하기 위하여, 나중에는 인도로 가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건너가 카사브랑카를 건설했다. 항해 시대에 흰색은 등대 대신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대 대용이 되었다.

여기서 간략한 포르투갈의 역사를 짚어보고 가자. 12세기 포르투갈 백작령이 세워지면서 카스티야-레온 연합왕국과 독립전쟁을 시작하였고, 결국 포르투갈왕국은 1143년 교황과 카스티야-레온 연합왕국 및 아라곤 왕국의 승인으로 독립했다. 1179년에는 아폰수 엔리케가 더 확장

된 영토의 왕국을 이룩했고, 1249년 아폰수 3세가 알가르브를 점령하면서 현재의 국경이 안정되었다. 이후 15, 16세기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 식민지를 둔 세계적인 정치, 경제, 군사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1580년 세바스티앙 1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여 다시 펠리페 2세의 스페인에 통합되었다. 그때가 스페인의 전성기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기술했다. 1640년 국가복원 혁명이 일어나 영국의 도움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지만, 1755년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1823년 가장 큰 식민지인 브라질이 독립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분열하였다. 이런 사태로 인하여 포르투갈 사람들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브라질과 미국 등으로 200만 명 이상이 이민 가는 등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

포르투갈의 항해역사는 항해 왕자라는 엔리케(또는 엔히크)의 활약으로 빛을 보았다. 그는 항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매년 탐험대를 파견하여 서아프리카 해안을 탐험하도록 했다. 1415년의 아프리카 세우타(Ceuta) 정복을 계기로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 탐험에 이어 대항해시대를 열었고, 1488년에는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에 도달하여 아시아 항로로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497년에는 바스코 다 가마의 원정대가 인도에 도달하여 해로를 통한 인도항로가 개척되었다. 그의 인도 항해는 세계 항해 사상 가장 중요한 항해 가운데 하나로 유럽과 아시아 문명 간의 최초의 본격적인 만남을 의미한다. 알부케르케는 1509년부터 1515년까지 포르투갈령 인도총독을 역임하며 '아시아 해상제국의 건설자'가 되었고, 아시아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여 많은 이익을 취했다. 그러나 유럽의 소국, 가난한 국가 포르투갈이 거대한 해양제국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지켜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17세기로 접어들면서 네덜란드에게 아시아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국 포르투갈이 남미에서 가장 큰 브라질을 어떻게 식민지로 삼았을까? 가톨릭국가로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 식민지 지역을 놓고 분쟁을 거듭하자, 1494년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중재에 나서서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조약을 체결했다. 즉 아프리카 서쪽 베르데곶(Cape Verde)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진 지점에서 자오선을 기준으로 기준선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고, 기준선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준선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브라질이어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고, 나머지 남미 지역은 스페인이 차지하게 되었다.

포르투갈 리스본



18세기는 유럽 전체가 계몽사상의 시대였다. 포르투갈 계몽주의의 상징적 인물은 폼발 후작(The Marquis of Pombal)이다. 1755년 수상으로 취임한 폼발 후작은 영국의 경제 성공을 모델로 삼아 포르투갈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제개혁을 시도했다. 즉 노예제를 폐지하고 군대를 재조직했다. 그런 가운데 1755년 리히터 규모 8.5~9.5로 추정되는 전대미문의 대지진이 리스본을 강타했다. 그에 따른 해일로 3만~4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건물의 85%가 파괴되었다. 폼발 후작은 사태가 진정되자마자 도시재건에 착수하여 근대적 도시계획으로 도시중심지를 재건축했으며, 재건된 건물에는 내진구조를 적용했다. 이 지역을 '바이샤 폼발리나(Baixa Pombalina)' 즉 폼발 후작의 바이샤 지역이라고 부른다.

살라자르는 1932년부터 1968년까지 36년간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그가 병으로 쓰러지자 마르셀루 카에타누 총리가 정권을 인수하여 여전히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런 와중에서 세계 각지의 포르투갈 식민지에서는 독립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청년 장교들은 '국군운동(MFA)'을 결성하고 1974년 4월 25일 드디어 무혈혁명을 일으켰다. 이 무혈혁명을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의 금문교에서 독재정권의 공화군과 혁명군인 시민군이 대치했을 때, 한 부인이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고 양쪽의 화해를 외쳤기 때문이다. 이에 화답하여 양쪽 군은 총을 내렸다. 이리하여 공화군은 물러나고 민주 정부가 수립되어 오늘날의 의원집정부제까지 이어졌다. 카네이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포르투갈에서는 4월 25일을 '자유의 날'이라는 공휴일로 정했다.

5시간 이상을 달려온 것 같다. 파티마에 도착했다. 식당에서는 포르투갈의 주식이라는 빠갈라우 정식이 나왔는데, 말린 대구를 뜯어 쌀밥과 버무리어 먹는 요리였다. 쌀밥이 정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베리아반도에 와서 처음 보는 식사였다. 그것은 이슬람인들이 전파한 식사문화의 유산이라고 한다. 맛은 괜찮은 편이었다.

파티마는 세계 3대 성모 발현지로 유명하다. 그 역사는 1917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모는 루치아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목장에 발현하여 세 명의 어린 목동 루치아(10세), 프란시스코(9세), 아신타(7세)에게 죄의 회개와 로사리오의 기도(목주기도)를 권하였으며, 세 가지 예언을 했다. 아이들은 비밀을 지켰지만, 성모마리아가 매월 13일 여섯 차례 나타난다는 소문이 나면서 13일이 되면 몇 천 명의 신도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정부는 목동들을 체포하고 순례를 금지했으나, 성모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발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성모가 나타나기로 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약 7만 명의 사람들 앞에 거대한 빛이 나타나면서 성모 발현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시켜주었다. 성모의 발현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앓은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교황청에서는 성모 발현과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930년 레이리라 주교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뒤따라 인정하였고, 파티마는 끊임없는 순례자들의 방문지가 되었다. 성당은 발현했던 자리에 세워졌고, 교황청에서는 그 성당에 바실리카 명칭을 부여하여 격을 높였다.

성모는 세 아이가 그들의 미래를 묻자 세 아이의 운명을 예언했다. 남매인 프란시스코와 아신타는 일찍이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고, 나이 많은 루치아는 수녀가 되어 오래도



빠갈라우



파티마 성당

록 봉사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 예언대로 2~3년 후 두 어린 남매는 유행성 독감으로 죽었고, 루치아는 수녀가 되어 코암브라 수녀원에서 봉사 생활을 하다가 2005년 2월 13일 97세의 나이로 죽었다. 세 명의 시신은 파티마 성당에 안치되어있다. 성모 발현의 100주년이 되는 2017년 교황이 직접 이 성당에 와서 세 명의 프란시스코를 모두 시성(諡聖)했다.

프란시스코 루치아는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 세계 주요사건들, 예를 들면 베를린장벽의 철거, 일차세계대전과 이차세계대전의 종언 등을 기록한 것이 사실과 일치했다.

파티마 성당에서 30분 정도 구경했다. 참배객들이며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호상 118호에 계속 연재

사 진 출 처



- | | |
|---|-----------|
| ■ 플라멩코, 마리아 루이사 공원, 빠깔라우 | 스페인관광청 |
| ■ 세비아 황금의 탑, 산텔모 궁전의 외부, 옛 귀족 마차타기, 스페인광장의 탑, 스페인광장 | 허창무 교우 제공 |
| ■ 포르투갈 리스본 | 포르투갈관광청 |
| ■ 파티마 성당 | 파티마투어리즘닷컴 |

등 터지던 새우에서 고래가 된 한국 우리 국민이 이룩한 78년



이 경 순 · 상61
취평뉴스넷 편집위원 겸 수필가&칼럼니스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한자로 표현하면 경투하사(鯨鬪鰕死)라고도 하는데 역시 같은 말로 순오지(旬五志)에서 나온 것이다. 어부지리와 반대되는 표현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정말 백지 한 장 차이다.

남들이 하는 싸움에 상관없는 타인이 피해를 받는다는 뜻이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남들이 다치는 걸 상관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약소국의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받는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곳들이 이 속담의 새우처럼 되기 딱 좋은 위치다. 한반도가 화약고란 말은 들은 바 전혀 없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랫사람들의 싸움에 윗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골 아파하는 것을 비꼬는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반대말 속담도 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양측의 싸움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뜻으로 쓸 수 있다. 단지 피해를 보는 사람의 지위가 달라질 뿐이다.

우리 한반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삼국시대의 가야는 삼국의 중앙집권 왕조들이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다가 최종적으로 신라에 합병되어 멸망했다.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 전쟁에서 보듯이 이 전쟁들 모두 외세의 개입이 있었던 전쟁인데 결과적으로 항상 한반도가 초토화 되었다. 그런데 6.25 전쟁은 대대적인 남침 작전을 주도했던 김일성과 박헌영이 주범이기는 하다.

“한국은 더 이상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할 제3의 고래가 됐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CL) 국제관계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 박사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책을 펴냈다. 제목은 ‘새우에서 고래로 : 잊힌 전쟁에서 K팝까지의 한국’이다.

이 책은 지난 1000여 년 역사 내내 한국은 열강들 사이에서 눈치껏 운신해야 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특히 한반도 영토와 주민들을 차지하려고 노리며, 문화를 자기네 것으로 바꿔 버리려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시달려온 처절한 과거를 소개한다.

그렇게 등이 터졌고, 또 언제 다시 터질지 몰라 노심 초사하던 새우가 스스로 고래가 됐고, 열강이 됐다고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말한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터리, 휴대폰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지난 10년 동안엔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K팝 음악과 ‘기생충’을 필두로 한 영화 등 놀라운 문화 소프트 파워로 몸집을 키워 거대한 고래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역사를 중국·일본에 침탈당했던 시대, 언어·음식·관습·정체성이라는 뿌리를 되찾은 본질적 ‘한국 다움’의 시대로 구분한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문화적 성공 근간은 일찍이 600여 년 전의 탁월했던 지도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그림 문자인 한자를 버리고 소리를 내는 입 모양을 바탕으로 만든 한글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

는 한국이 경제력·소프트파워·군사력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해 계속 몸집과 근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는 미국·중국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좋은 패’를 쥐게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책 말미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썼다.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제 자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다져나갈 것이다.”

-
- 01 우리는 일본 속국에서 광복된 나라가 되었다.
 - 02 우리는 왕정국가에서 미국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 03 우리는 햇바지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
 - 04 우리는 짚신의 나라에서 신발 수출 1위의 나라가 되었다.
 - 05 우리는 초가집의 나라에서 아파트의 나라가 되었다.
 - 06 우리는 호롱불의 나라에서 원전수출의 나라가 되었다.
 - 07 우리는 사랑방 글방의 나라에서 세계 제일의 문맹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 08 우리는 UN의 지원으로 큰 나라에서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다.
 - 09 우리는 외화벌이 노동수출의 나라에서 노동수입국이 되었다.
 - 10 우리는 송능의 나라에서 커피 소비 왕국이 되었다.
 - 11 우리는 짐 보파리의 나라에서 재벌의 나라가 되었다.
 - 12 우리는 가마의 나라에서 자동차 천국의 시대가 되었다.
 - 13 우리는 지게 길의 나라에서 거미줄 고속도로 천국

이 되었다.

- 14 우리는 거북선 나라에서 선박수출 세계제일의 나라가 되었다.
- 15 우리는 대장간의 나라에서 제철 왕국이 되었다.
- 16 우리는 5일장의 나라에서 백화점, 대형마켓의 나라가 되었다.
- 17 우리는 비행기 없던 나라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 18 우리는 활의 나라에서 전차·대포·전투기 수출 8위의 나라가 되었다.
- 19 우리는 달보며 계수나무 읊던 나라가 달 탐사위성 운영 국가가 되었다.
- 20 우리는 판소리의 나라에서 K-팝 수출의 나라가 되었다.
- 21 우리는 가설극장에서 세계적 영화배우·K팝스타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 22 우리는 마라톤만 1등의 나라에서 태권도·수영·빙상·골프·양궁·배드민턴·탁구·펜싱·야구 등 1등 국가가 되었고 하계·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되었다.
- 23 우리는 달구지 나라에서 자동차 생산 5위에 지하철은 세계적 나라가 되었다.
- 24 우리는 60달러에서 35,000달러의 세계가 인정한 10위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광복78년 만에 우리 국민이 이룩한 쾌거이며 자랑입니다. 우리 크게 한 번 웃어봅시다!
“고래랑 새우랑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새우요.”
“고래는 밥이고 새우는 짱이니까.”





55 회장 이득주

동기 여러분들께 드리는 편지 ●●●

癸卯年 춘삼월이 돌아왔습니다. 지난겨울은 유심히 혹독한 한파로 모두가 生活適應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與件속에서 會員님 모두가 老年 生活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간의 소식을 요약 보고 드립니다.



이득주 회장

1. 총회 및 출판기념회 소식(2022.10.7. 모임) : 17명이 참석했음.

2. 經營大學 교우의 밤 소식(2022.12.1. 행사) : 이득주 회장과 정영호 동기가 참석했음.

3. 회원 동향 소식

· 권숙정 : 귀국체류 2개월, 연말에 캐나다로 출국했음.

· 황달호 : 총회에 참석하였고 연락처 파악했음.

· 남치현 : 캐나다 다녀왔음

4. 건강 소식

· 권중택 : 담낭수술 이후 입원 및 퇴원하여 재택 가료 중

· 양만득 : 허리수술, 재택 요양 중

· 김정상 :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재택 가료 중

· 이석호 : 허리불량

· 남종현, 박대식, 박천배 : 보행 불편 재택 가료 중

동기 분들 모두의 쾌유를 바랍니다.

4. 소통 현황 : 박천배, 이관복, 이상천, 이지원, 조대행 등 통화가 잘 안됨.

※ 공지 사항 : 55학번 동기 여러분 신상 변동사항(주소변경, 건강상태, 전화교환 등)을 직접 이득주 회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不然이면, 완전히 미궁에 빠지게 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 회장 이연상 / 부회장 변동수 / 부회장 유창진

56학번 동기회 정기총회 ●●●

매년 연말이면 개최하던 경영대 56학번 동기회가 지난 2019년 12월 18일에 개최된 이후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 약속동 춘천 막국수 집에서 3년 만에 총회를 열게 되었다. 3년 전만 해도 50여 명 정도 연락하면 평균 20여명의 동기들이 참여했는데 지난 3년 사이에 타계한 동기도 여럿 있고 또 투병생활로 인해 참석 못하는 동기들도 해마다 늘어 몇 명이나 참여할까 걱정을 하며 연락 가능한 40여명의 동기들에게 통지를 했는데 겨우 14명의 교우만 참여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준 동기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정기총회

식순에 따라 그간의 경과보고를 통한 활동상황, 동기들의 소식 등을 전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임에 참석하던 동기들이 지난 3년간 6명이 타계했다. (김현묵, 이병철, 이진우, 이창우, 최수영, 홍순옥) 회칙에 의해서 올해도 임원 개선을 하려 했으나 현 집행부가 계속 유임해 줄 것을 참석한 동기 전원이 만장일치로 요청해서 하는 수 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4년부터 벌써 10년째 연임이 되고 말았다.

짧은 시간이나마 즐거운 환담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지만 역시 80대 후반의 나이들이 많은 동기들이라 화제가 건강관련 사항이 제일 많았던 것 같다. 몇몇 동기들은 몸이 안좋아 참석은 못하지만 총회 개최를 축하한다는 안부 전화를 해주어 대단히 고맙고 빠른 쾌유를 한 후 모임에 꼭 참석해주기를 학수고대한다.

지난 총회에 이어 이번 총회도 매년 받아오던 회비를 받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동기들이 찬조해준 기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고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찬조금 이외의 정기총회비는 받지 않고 동기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헤어지기는 아쉽지만 오래 있을 수 없어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학창시절에 패기 넘치게 외치던 교호 '임실렌티 체이흠...'을 제창하고 매년 이종순 동기가 보내주는 달력과 카렌다를 나누어 갖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61 회장 정시균 / 총무 이채영

동기회장 초청 간담회 ●●●

2022년 11월 20일 오후 12시 30분 9호선 삼성중앙역 앞 '해초록'에서 김윤장 재무, 이채영 총무, 엄무성, 최민자 감사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연말 송년회 및 총회 개최와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정시균 동기회장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총회와 연례 친선 모임들을 갖지 못하여 동기들 간에 소원해졌으므로, 이번 12월 16일 7호선 논현역 앞 '취영루'에서의 송년회를 통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근황들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 됨에 따라 개최가 불가능하여, 2023년 5월로 연기되었다. 또한 2023년 2월 12일 12시 역삼역 앞 '파크루안'으로 소모임 회장들인 도암회 김 실, 이월회 성영일, 초암회 이복성, 삼목회 박인우, 광암회 이채영, 재무팀장 김윤장을 초청하여 소모임을 활발하게 운영해온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오는 5월 개최할 총회가 원만히 개최되고, 후임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동기회장 초청 간담회

삼목회(걷기모임) 소식 ●●●

매주 셋째 목요일 만나 서울근교 둘레길을 걷고 있는 모임으로 10~15명이 만나고 있으며, 2022/10/20 오전 11시 30분 경의중앙선 용문역에서 만나 마중 나온 양평에 거주하는 채갑병 회원의 안내로 용문사를 찾아 천년 은행나무의 노란 단풍과 사찰 경내를 둘러보고 사하촌으로 내려와 채갑병 회원이 제공한 푸짐한 음식과 술잔을 나누며 가을 정취를 즐긴 후 상경하였다.



인왕산 자락길 걷기

- 11/17 오전 11시 3호선 경복궁역에서 만나, 인왕산 자락길을 2시간동안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껏 즐긴 후, 서촌의 곰탕집에서 막걸리 잔을 나누는 후 귀가하였다.
- 12/21 오전 11시 종로3가에서 만나 강우로 인하여 북촌걷기를 취소하고, 인근 은행나무집에서 송년회로 대체하였다. 최민자 회원이 제공한 푸짐한 고기로 포식하며 2022년의 안전 행사를 자축하고, 새해에도 둘레길 걷기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초암회(서초모임) 소식 ●●●

9호선 반포역 인근 '산들해'에서 격월로 매 홀수 달에 만나고 있으며, 이복성 회장을 중심으로 15명이 오찬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과거 22명의 회원이 부부동반으로 만나오던 전통 때문에 회원 간의 정이 매우 돈독한 것이 특징이다.



호비회(골프모임) 소식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만나 코로나에 관계없이 라운딩을 이어왔으나, 나이를 속일 수 없는 회원들의 건강상태로 인원이 줄어 3팀을 채우기 힘들어져 금년 말로 모임을 해체하기로 하였다.

도암회(여의도모임) 소식 ●●●

여의도에서 근무하던 동기들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3시 여의도 리버티타워 2층에서 김 실 회장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으며, 10/21, 11/18, 12/16, 2023/1/20, 2/17, 각각 모임을 가졌고 3/17에도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회원들이 돌아가며 당일 오찬비를 담당하고 있다.



11월 17일 도암회 모임

청춘대학(실버학교) ●●●

고대불자교우회 모임에 참가하던 동기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부정기적인 모임이 정기모임으로 고착되었다.

- 11/15 11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만나 호수와 장미공원을 걷은 후 백마역 인근 음식점에서 중식코스 음식으로 미각을 호강시킨 후, 인근의 멋진 젊은이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젊은이들 기분을 내보았다. 오늘 모임에는 지리산 처녀 오영희 회원이 오랜 만에 참석하였다.
- 1/24 오후 13시 역삼동 '고향마을'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이달 3/16 12시 옥수역 4번 출구 앞 '옥수칼국수'에서 오영희 회원이 지리산으로 잠시 귀향하는데 따른 송별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청춘대학 일산 호수공원 모임

62 회장 권동욱 / 총무 한상욱

62학번 동기회 정기총회 ●●●

2023년 계묘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62학번 신입회장으로 권동욱 동기를 지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2년 11월 7일 총회에서 동기들의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감사에 송기현 동기를 선임, 사무총장에 한상욱 동기를 연임토록 하였으며 금년(2023년)에는 동기회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각 동기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권동욱 회장

64 회장 안덕수 / 사무총장 조재복

백수회 물향기 수목원에서 하루 ●●●

- 일 시 : 2022년 11월 12일(토)
- 참석자 : 박명익, 박채길,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

오래전 초등학교 때도 그랬었다. 어른들은 왼쪽이라고 했고 우리들은 소풍이라는 가을철 행사 때처럼 마음이사 예전처럼 들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설레는 정도는 마찬가지였다. 백수회장 지동직의 제안으로 오산대역 수목원을 걷기 장소로 택했다. 늦가을 오후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우산 준비는 물론 비옷도 꺼입고 나서서 급행 전차를 탈라치면 일찍 전철역에 서둘러 가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조금함은 더했다. 예정보다 한 시간 먼저 도착한 오산대역에서 수목원은 가까운 곳으로 예정 인원 8인중 7명이 도착, 나머지 한명은 카톡 보다가 역을 지나쳐 다시 되돌아오느라 늦어진다고 연락이 와서 먼저 출발, 몇 번씩 와 봤다는 동기들이 대부분이나 처음이어서 연못처럼 군데군데 담겨진 물과 이제 제대로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데 “물이 나오게 찍는다.”고 했더니 대화의 물꼬를 물로 시작하여 물 좋은 곳, 물이 많아야 맛있다, 물 맑은 곳에 인물난다, 물이 동식물을 성장케 한다, 물 빠진 호수, 끝없는 물 이야기는 새참 때 “아들과 자주 충돌하는 부자지간의 충”을 이용규 철학 박사가, 이론을 최종욱이 구체적 설명으로 천지의 이치를 말해준 예외 인물이 유성준, 아들 말고 딸 이야기 좀 하자는 이용규는 딸과 사위, 본인까지 박사가 무려 9명이나 되는 집안에 누가 감히 딸 자랑 할 수 있겠는가? 유성준이 오명을 마호병에 담은 것부터, 칭따오 맥주, 단감, 구운 계란, 파워 초코렛, 갈매, 각종 과자 빼빼로 등과 막걸리로 배가 어느 정도 찼으나, 플라타너스 노란 단풍, 햇빛이 투과된 단풍의 선홍잎, 분수와 수목원 박물관, 몇 백 년 된 고사목 배경, 메타세콰이어 고운 단풍, 끝없이 셔터가 눌러지고 포즈 잡느라 여념없이 오전을 보내고 오후 한시가 넘어 들어간 식당에는 이미 갈비탕, 곰탕이 동이 나서 팔지 못하고 직화 불고기, 불고기 냉면, 뼈다귀 탕이 만만한 주문꺼리로 막걸리와 함께 얼마 전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도 늦게 합류한 안덕수가 오늘 점심을 사서 푸짐하고 맛있는 요리와 술을 먹고 비가 온다더니 세상에 식당에 들어가니 비가 쏟아지고 식사 끝나서 나오니 말끔하게 비가 개이는 기상 변화가 더욱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해줘서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을 때까지 이어지는 대화는 어느 세월에 끝이 날 건가? 멋들어진 가을 날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물향기 수목원에서

백수회 수요걷기를 마치고 ●●●

-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 참석자 : 김건수, 박채길,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새로운 마음으로 백수회장으로부터 대장을 인수받은 이경희 대장의 연속안타는 8명이상 모임을 몇 번째 만들었다는 것이다. 춘분이 지난 후 서서히 찾아오는 봄치녀는 아직도 응달진 곳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겨울을 남풍으로 몰아내고 있어 따스한 햇빛 또한 걷는 길 곳곳의 진흙길을 질퍽이게 하였지만 오늘 걷는 코스의 산등성이 밑자락을 포함 고속도로 옆 가꿔진 산책길은 잘 선택되어서 회원 참가가 많아진 것 같다. 그러나 백미는 코스보다 인걸이 좋아서 오늘 점심으로 뼈다귀감자탕, 양선지해장국에 막걸리가 곁들인 좋은 점심을 모교 고려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손녀가 합격되어 후배손녀를 둔 겹경사를 맞은 지동직 회장이 턱으로 내서 잘 먹었는데 역시 코스보다 인걸이 먼저여서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이다. 지동직 백수회장께 다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인물, 좋은 코스, 좋은 대화, 좋은 일, 좋은 음식이라서 모두가 복 받은 것이다. 새참 때 나는 오랜만의 흥등가 이야기는 하루 종일 계속해도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이 홍콩, 뉴욕, 도쿄, 파리, 사이공, 종삼, 신촌, 청량리, 미아리, 동대문, 영등포 등 끊임없이 계속되어 중간에 일어서면서 그래도 건강이 먼저이고 그러자면 걷자고 하면서 다음 걷기를 회기동 주변 산에 가자고 의견을 모으고 헤어졌다.



수요걷기



백수회 남산의 하루 ●●●

- 일 시 : 2023년 3월 4일(토)
- 참석자 : 권영기, 김현희,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이경희, 이용규, 지동직, 최중욱

백수회 대장을 인수하면서 참가인원 동원에 연거푸 안타를 치면서 9명씩 참가하게 하더니 드디어 두 자리 한 죽의 수로 달성한 이경희 대장, 한동안 낙상으로 고생하셨던 김현희 만형의 참가, 勳具 선생이 누구여서 서로 만나겠다고 아우성인 東州, 芝山, 雪峰, 雪山, 逸凡, 雲山, 斗湖가 9를 만들더니 마지막으로 작년까지 총장을 맡아 64동기회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한 장본인인 泉中 권영기가 참가 대미를 장식했고 유명식 카톡계 대부의 샘솟는 지식의 무궁무진함과 비견되는 뛰어난 영상 창작 능력의 소유자 박명익, 아들의 훌륭한 치료로 동기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스냅사진 작가 신준철, 박채길을 짝새로 지명하겠다는 만능 타렌트(천하의 잡X) 이용규 등산회장, 최근 일본여행에서 돌아온 지동직 회장과 함께 봄이 엿보이고 있는 남산 소나무 돌곶길을 걷고, 새참 때는 막걸 리가 잘 팔리더니 어린애들과 같이 떠들며 대며 남산을 내려와 전국의 굴요리가 모인 식당에서 굴 순두부, 굴 국밥, 돌솥비빔밥, 생선구이, 돼지고기 볶음과 막걸리를 퍼지르게 먹는데 머리 좋은 芝山이 굴 무침을 시켜 지 회장이 손주를 고대 후배로 둔 경사 턱을 두 번째 쓰는데 허리가 휘게 만든 장본인, 녀석 좋게 지 회장이 턱 내는 줄 모르고 시켰다고 너스레, 그러고 보니 뭐니 뭐니 해도 손주 잘 두면 재력도 있어야 될 판(?) 다시 한 번 지 회장의 호의에 감사드리고 온 가족이 만복과 영광의 은총 받기를 빌며 남산의 하루는 이렇게 팔순 장년들을 소년들처럼 들뜨게 만든 날이었다.



남산에서

69 회장 이재선 / 제1총무 조현룡 / 제2총무 이명식

69석영회 산악회 변함없이 산행 ●●●

69석영회의 산악회는 그 동안도 매월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산행 행사를 가졌으며 2월 25일은 삼성산 칼바위, 장군봉을 재등정 하였고 명동칼국수 사당동 분점에서 뒤풀이를 가졌다. 이날 삼성산 등정에 참가한 동기는 온영수 전 산악회장, 임병길, 장백희, 송인성 동기이고 산행 후 식사장소에는 장백희 동기는 가고 김승호 동기가 합류하였다.



삼성산 등정

교우의 밤 행사 참석 ●●●

2022년 12월 1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고대 경영대 교우의 밤 행사에는 60년대 학번 교우로서는 최고로 많은 22명이 참석하였다. 유명 실업가인 서영률 동기는 참석과 동시에 사업상 참석 못한 최상영 동기와 함께 고액기부를 69석영회의 이름으로 했다. 한편 경품 추첨에서는 매년 1-2등 대상을 어김없이 받아 왔는데 비교적 소수 인원 참석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박부준 동기가 2등 상에 당첨되었다.



교우의 밤 당시 69학번 테이블

설날선물 배송 ●●●

2023 설날 명절에 즈음하여 69석영회 동기회는 60여명의 활동하는 석영회 회원 전원에게 피로회복, 기력증진, 면역력 강화를 촉진키 위하여 정관장 홍삼제품을 배송하였다.



석영회 설날선물

70 회장 한부연 / 총무 정균화

2월 삼목회 모임 (회장 : 전석주) ●●●

● 일 시 : 2023년 2월 16일(목)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모여 식사하고 바로 당구로 연결되는 삼목회를 역삼역에 위치한 가시리에서 가졌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했다가 금년부터 재개한 이 소모임에 19명의 동기들이 모여 쌓였던 이야기를 풀었다. 남도의 맛깔난 음식에 동기 중 한명과 잘 아는 주인장의 푸짐한 인심이 어우러져 풍성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멀리 창원에 사는 동기까지 합류하여 공자삼락이 무엇인지를 70년어서 즐감하였다. 2차 당구모임에는 11명이 동참하여 그간 갖고 뒀던 기량을 견주어보았고 바닷가 당구가 짜다는 속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삼목회

2월 막토회 모임 (회장 : 조안석) ●●●

● 일 시 : 2023년 2월 25일(토)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갖는 등산모임 막토회를 2023년 2월에 재개하여 첫 등산지로 청계산을 잡았다. 홍보기간이 짧아 6명의 마니아만 참석했지만 등산 후 막걸리와 함께한 점심이 걸쭙했고 날씨도 화창하여 소수정예가 즐기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3월 막토회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백마산을 등정하기로 하고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



막토회

71 회장 김재원 /총무 황성룡

71학번 동기회 소식 ●●●

71학번 13명의 동기들이 지난 2월 11일에 계양산 등산모임을 가졌다. 우리 등산모임은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정기산행으로 건강과 학창시절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등산모임의 회장은 오형중 동기이고, 총무는 김영수 동기다. 71학번 동기회 골프모임은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진양밸리에서 4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유윤산 동기가 골프회장을, 박명흠 동기가 총무를 맡고 있다.



등산모임



72 회장 최성진 / 총무 류병기

신년모임 ●●●

- 일 시 : 2023년 2월 17일(금)
- 장 소 : 압구정

압구정동 CGV에서 영화관람 후 40명의 동기들이 오미가 한정식

식당에서 모여 신년모임을 가졌다.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영72 동기인 구자열 전 교우회장의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하고 신임 집행부 주관 첫 모임으로 금년도 행사를 계획하였다. 신임회장에 경영학과 최성진, 사무국장에 무역학과 류병기 동기가 선임되었다. 신임 집행부는 소모임인 골프, 등산, 당구모임에 년 100만원씩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최성진 회장



류병기 총무



신년모임

73 회장 현기춘 / 총무 유장근

신년하례회 ●●●

-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 장 소 : 선릉역 부근 '동보성'

코로나로 못했던 모임이라 그랬는지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다. 부모도 4쌍이나 참석했다. 높은 관심 속에 한경수 동기의 '생활속 세무' 특강이 있었다. 음악적 소질이 풍부했던 김형준 동기의 바이올린 연주와 퇴직 후 익힌 이수원 동기의 훌륭한 색소폰 합주가 아주 멋졌다. 그 연주에 맞춘 참석자 전원의 합창이 이 모임에 의미를 더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신년하례회

74 경영회장 조균환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11월 남산걷기 ●●●

- 일 시 : 2022년 11월 5일(토)

오늘은 식당으로 바로 온 동기들까지 모두 12명이 모였고 대한민국 장 앞에 참석한 동기들은 모두 8명이었다. 나머지 4명은 식당으로 직접오거나 접근성이 좋은 남산이라 중간에서 합류한 동기들이 있었으며 남산 도로로 5명이 바로 올라갔고, 코스가 조금 긴 돌레길로 4명이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즐겁게 걸었다.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74학번 전체 동기회장을 맡을 예정인 조균환 74동기회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남산모



11월 남산걷기

임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며 1시쯤 한호석 남산회장의 결정에 따라 구자형 남산총무는 남산모임을 파하였다.

경영74 2월 남산견기 ●●●

● 일 시 : 2023년 2월 4일(토)

입춘 날인 오늘, 매달 첫째 토요일은 74동기들이 남산가는 날이라 아침에 총무로 대한극장 앞으로 부지런히 갔다. 사실 이번모임의 참여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제 십 수 년 다니던 냉면집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호석 남산회장과 구자형 총무 등 친한 동기 셋이 모여서 이번에는 필동 루트로 남산에 올라갔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우리 나이또래의 아저씨(?)들이 무리지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번에도 역시 남산 순환 도로에 접어들어 올라갔으며 인증사진을 남길 요량으로 남산 중간전망대에서 강남 쪽을 바라보는 방향과 남산통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 남산 정상 가까이 있는 성벽 길로 접어들어 편히 걸으며 내려왔다. 남산도서관을 옆으로 끼고 총무로를 지나 을지로3가역 어느 유명한 순대국집에 들어가 보니 11시 30분 정도의 이른 시간인데도 대기자들이 벌써 18개 팀이라 대기한다고 등록은 해 놓았지만 가지는 않고 근처에 있는 오래된 중국집으로 향하였다. 오래간만에 난자 완스 안주에다가 두꺼비 한 마리를 정겹게 나누어 마시고 간짜장, 짜장, 굴짬뽕으로 식사하고 아쉽지만 헤어져 각자 집으로 향하였다. 3월 남산모임은 보다 많은 동기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2월 남산견기

경영74 2월 당구모임 ●●●

● 일 시 : 2023년 2월 8일(수)

당구에 관심이 있는 동기들이나 서로의 얼굴을 보고픈 동기들을 만나고자 오후 또는 저녁에 만나 당구도 즐겁게 치고 기분 좋게 저녁을 들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물론 경영74 동기회안에 양선지 모임이라는 소모임이 있지만 이날은 특별히 현 동기회장인 조군환 동기, 사무총장 구자형 동기, 사무국장 김지섭 동기가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오래간만에 많은 동기들이 모였고 일부동기들은 노래방까지 가서 즐거운 저녁 한나절을 보냈다. 특별히 그날 저녁식사는 조군환 회장이 모임 비용을 부담하였고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온 조철래 74동기회 명예회장이 양주를 1병 가져와 더욱 즐거운 모임이 되었다. 경영74 파이팅!



당구모임

경영74 3월 남산견기 ●●●

● 일 시 : 2023년 3월 4일(토)

매월 첫째 토요일 아침 9시 30분은 남산클럽모임이 있는 날이다. 만나는 장소는 옛 추억이 어려 있는 총무로 대한극장 앞이고 이날의 목적지는 남산 정상이었다. 코로나 때문인지 모이는



3월 남산견기



인원들이 확 줄었지만 그래도 매월 첫째 토요일 아침에는 동기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남산한옥마을에서 사진을 찍고 남산 둘레길로 접어들어 천천히 걸었다. 이제는 완전한 봄날이어서 걷기에 너무 좋았다. 특별히 오늘은 수술 받은 사무총장에 대한 배려로 남산 숲길을 피하여 완만한 길로 거의 다 올라가서는 성곽 길을 조금 걷다가 이내 정상에 오르고 다시 평안하게 내려갔다. 평소보다는 한 10~20분 정도 늦게 냉면집에 도착하여 한호석 회장의 건배제의로 편육과 빈대떡을 안주삼아 들며 취향대로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특별히 정 영 동기가 지난번 상사시에 동기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여 식사대를 지불해 주었다. 즐거이 그간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1시쯤 되어 구자형 총무의 끝맺음 선언으로 모두가 함께 박수를 치며 모임을 종료하고 다음 달 모임을 기약하며 몇몇 동기들은 당구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각자 집으로 향하였다.

78 회장 김일용 / 총무 정세종

경영78 등산모임(대공원 둘레길) (산악회장 : 정세종) ●●●

● 일 시 : 2022년 11월 12일(토) 오전 10:00

오늘의 산행코스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 3번 출구에서 모여 호수공원길-동물원 둘레길-현대미술관-호수공원길-고향집(뒤풀이)으로 정하였다. 거리는 스틱이 불필요하고 등산화 대신 트레킹화가 가능한 초급코스 약 6Km로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였다. 이번 코스는 정세종 산악회장이 등산 멤버들, 특히 78동기회장의 체력을 감안하여 특별히 선택한 코스였다. 산악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날 등산모임에는 무려 16명(강석현, 계창민, 김관익, 김병수, 김선기, 김일용, 박병규, 박수영, 안진철, 유병안, 유재권, 이계은, 이흥영, 정세종, 주채규, 최동원)이 참석하였다. 김일용 회장은 이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 트레킹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바쁜 와중에도 2차 뒤풀이에 참석하였다. 빨갛게 물든 대공원 단풍 길을 동기들과 같이 걸어서 모두들 즐겁고 보람찬 하루였다. 다음 정기 모임에도 건강과 친목을 위하여 동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대공원(호숫가동물원) 둘레길

경영78 김동원 동기 총장 선임 축하 모임(낙원동 리치런치) (78동기회장 : 김일용) ●●●

● 일 시 : 2023 1월 18일(수) 오후 5:30

30명의 동기가 낙원동 소재 리치런치에서 김동원 총장 선임 축하 모임을 가졌다. 저녁 식사비용 130만 원 중 70만 원은 김일용 회장이, 60만 원은 박수영 동기가 협찬하였다. 홍 승 전임 회장은 와인 27병을 협찬하였다.

강석현 동기는 환상적인 동영상 제작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일용 회장 이하 4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멀리 수원에서 온 박재호 동기, 연천에서 온 조정환 동기, 충주에서 온 김 열 동기, 대구에서 온 박주병 동기와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참석한 정상원 동기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동기들이 낸 회비 75만원은 78동기회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총장 선임 축하 모임

경영78 등산모임(안산 산행) (산악회장 : 정세종) ●●●

● 일 시 : 2023년 2월 11일(토) 오전 10:00

오늘의 산행코스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모여 능안정-전망대-봉수대-무악정-서대문도서관-홍제역 강고집(뒤풀이)으로 정하였다. 이번 코스도 정세종 산악회장이 등산 멤버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특별히 선택한 코스였다. 이날 등산모임에는 9명(강석현, 김병수, 김일웅, 박병규, 박수영, 안승배, 이흥영, 정세종, 최동원)이 참석하였다. 이날의 스타는 단연코 박병규 동기였다. 블랙 선글라스에 Colorful한 등산복에 핑크색 스카프까지 아줌마들의 눈길을 독점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강고집 뒤풀이에서 LA갈비 점심 스푼까지 외양뿐만 아니라 심성까지 멋진 키다리 아저씨에게 모두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였다.



안산 산행 사진

경영78 당구 모임(사수회) (당구회장 : 이윤찬)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26일(수) 오후 2시, 서초역 대성 당구장
- 참석자 : 김 열, 이윤찬, 한덕철

79 회장 서학석 / 총무 오성호

경영79축구모임(KUFC79) 송년회 ●●●

-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18:00~21:30
- 장 소 : 리버사이드 호텔 5층 토파즈 룸

46명이 모여서 가진 고대경영79축구모임(KUFC79)의 송년회는 동부인을 모티브로 해서 모인 최초의 송년회가 되었다. 출발할 때부터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부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으로 어우러져 온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서학석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모모임을 총회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며 이기자(이런 기회 자주 갖자)로 건배사를 제의하여 박수를 받았다.

이상현 KUFC79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아쉬움을 물리치고 오늘 모임이 진행된 것에 감사하면서 KUFC79의 발전을 기원했다. 지난 9월 하순에 남편 박수완을 분향인 별나라로 보내고 49재를 지내고 참석한 정수영님께서는 명예회원을 드리며故박수완 동기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장민기의 사회로 시작된 2부 행사는 김성태의 POP송을 시작으로 게임과 더불어 참석자에 대한 소개 및 대여해온 노래방기계를 이용하여 즐거운 음률을 발산하며 즐겁고 신나는 자리가 되었다. 시간이 무르익으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열시가 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준비하고 수고한 KUFC집행부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



KUFC 송년의 밤



습으로 새로운 계획과 도전에서 멋진 모습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협찬에 감사드립니다〉

서학석 총회장 100만원, 이상현 KUFC회장 100만원, 정수영(故 박수완 미망인) 50만원, 김석호 프리즘 대표 고급스탠드 10개, 이성훈 당구회장 고급LP판 3개, 안희준 작가 고급와인 10병과 무료 촬영 봉사

2022년 연말결산 당구대회 ●●●

- 일 시 : 2022년 12월 11일 (단식) / 12월 18일 (복식) - 이틀
- 장 소 : 여의도CV당구클럽

2022년 연말결산 당구대회가 있었다. 일 년 내내 같고 닮은 실력을 겨루는 연말대회였다. 단식과 복식게임으로 진행한 이들간의 게임은 많은 참가자에게 수상할 기회를 주고자 집행부에서 애써서 기획하였다.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느라고 애쓴 이성훈 회장과 서중산 사무총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서학석 총회장과 이성훈 회장의 찬조로 참가자 모든 이가 즐거워하는 참가상에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서유창 대표는 여성용 화장품세트를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하여 올해 마지막 당구모임을 더욱 훈훈하게 해줬다. 참가한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드리며 연말과 내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지혜로운 동기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 단식 : 1등 이성훈, 2등 이승훈, 3등 조성진, 4등 장덕윤
- 복식 : 서학석, 박현우 팀 / 허만길, 이일환 팀



연말결산 당구대회

이건희 컬렉션 - 이중섭 展 관람 ●●●

- 일 시 : 2022년 12월 19일(월) 16~17시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소격동)

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중섭 작품'을 관람하였다.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理想을 그려낸 민족 화가 이중섭의 작품 약 100여점을 관람할 기회를 가졌다. 관람 후에 동기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중섭에 대한 삶과 예술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다. 모임을 계속하면서 그동안 바쁜 현실 때문에 보지 못했던 문화에 대해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모임 후에는 맛있는 해물찌개 반주를 하면서 담소하였고, 멋진 한옥 공간에서 한방차(서학석 회장 찬조)를 마시며 찻집 한쪽 벽에 설치된 '정극인의 상춘곡'을 음미 하였다. 또한 성탄 및 송년을 위해 허만길 회장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받고 즐겁게 귀가하였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관람 모임

고대경영79 송년의 밤 ●●●

- 일 시 : 2022년 12월 26일 (월) 오후6:00
- 장 소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국화룸
(CHRYSANTHEMUM ROOM)

품격 있는 와인과 장소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나라셀라의 마스철 회장이 좋은 와인을 싸게 공급해주어 고품격 행사가 되었다. 미국 백악관에서 즐겨 쓰는 Schramsberg Blanc de

Noirs(Sparkling Wine)으로 서학석 회장이 "이기자(이런 기회 자주 갖자)!!"로 축사와 건배사를 하면서 시작된 송년회가 시작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동기회 모임 이래 최대인원인 64명이 참석하였다. 78명까지 참석 예정이었으나 연말 인사와 코로나 확진 등의 사연으로 14명이 No-Show 되는 상황이 생겨서 많이 안타까웠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화이트와인으로서 La Crema Sonoma Coast Chardonnay 라는 최고의 와인으로 지칭되는 것이었다. 레드와인으로는 La Crema Sonoma Coast Pinot Noir와 Duckhorn Canvasback Cabernet Sauvignon으로 덕훈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오찬에 쓰인 프리미엄 와인으로 인정받고 있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와인의 진수를 느끼는 자리였다.

나라셀라의 임원이 와서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식사는 중국식으로 진행하여 간결하고 부드럽게, 동기들과 어울리며 분위기를 맞추었다.

오성호 사무총장은 최근 '행복'의 비결에 대해 들은 바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은 베품으로 나타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베품(布施)은 財보시, 法보시, 無畏布施가 있는데 재물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無財七施라 하여 밝은 미소, 고운 말, 어진 마음, 편안한 눈빛, 몸으로 베푸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쉬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랑과 자비와 베품의 전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행복과 직결된다고 한다. 시간은 무르익어 품위 있는 음악을 준비한 동기들에게 무게중심이 넘어갔다. 먼저 허만길 동기가 임파종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진용주 동기가 색소폰으로 좌중의 집중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연습하여 많은 즐거움을 주고자 애쓴 김성태 동기의 기타연주와 노래는 가히 가수수준이라고 할 만 하였다. 지난 행사 후에 남았던 티셔츠, 목수건, 머플러, 네임택, 머그컵 등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동기들에게 배포하였고, 2023년도 고대 카렌다와 임영진 동기가 찬조한 카스테라 인절미를 귀가 길의 선물로 제공하였다.



송년의 밤

경영79 신년모임 ●●●

- 일 시 : 2023년 2월 27일(월)
- 장 소 : 그루터기

모임시각이 되기 전에 이미 30여명이 모여 자리를 잡았다. 자그마한 음식점이라 40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주인이 만들어준 자리를 비좁게 어울려 앉아 동기종기들 재미있게 담소들을 나누며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 최종 38명이 모여지자 서학석

회장이 안부인사와 더불어 "본인의 책임 하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즐겁게 어울리자"는 대회사로 말문을 열고 건배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오성호 사무총장은 2022년도 결산보고를 하였고 김상해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지난해 사업으로는 "낭만의 거제 친구와 함께"라는



신년모임



제목의 거제여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57명의 참석과 3900여만원의 지출, 이상현 KUFC회장의 통 큰 도내이션으로 모두가 한껏 즐거움을 부풀어 올랐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송년회로 치룬 와인파티는 동기모임이라 최다인원인 64명의 동기들이 모여 그야말로 모두가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자리였음을 공감하였다.

또한 거제여행에 콘도예약에 애써준 김영한C와 현지에서 골프장을 부킹해준 이상현의 동생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춘·추계 골프대회를 위해 부킹과 더불어 바비큐 파티를 마련해준 신동의 회장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주당구대회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준 장치평 회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소모임이든 전체모임이든 알게 모르게 지원해주고 봉사하여준 많은 동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작년 내내 수고한 집행부와 소모임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이상현 KUFC(축구)회장은 올해 사업으로 김제방문과 가족체육대회, 해외나들이(괌), 연말송년회 등을 기획하고 있음을 발표하였고, 김성태 KUPGA(골프)회장은 춘·추정기모임과 더불어 월정모임을 통해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장덕윤 산악회장은 1박 2일 코스의 봄·여름의 원정산행과 근교, 원정 등의 산행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근시일 내에 울릉도여행도 기획하겠다고 했으며, 이성훈 당구회장은 2회의 정기대회와 더불어 2박 3일 정도의 원정당구대회도 기획하고 있음을 암시하였고, 허만길 회장 대신 발표한 조성진 KUCC(문화)사무총장은 작년에 출발한 모임이지만 알차고 풍성한 문화가 있는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발표를 하며 소모임에 참여하는 동기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교류관계를 이어나가는 윤희유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들을 밝혀 주었다. 동기회차원에서는 EBC(Everest Base Camp)트레킹을 가을에 진행하고자하는 청사진도 밝혔다. 또한 오늘은 양상문(전 LG, Lotte 프로야구감독)의 생일이기도 하고 여자야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무임금 재능기부를 하기로 한 것을 축하하여 자그마한 케익으로 불꽃을 피웠다.

모든 동기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의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하면서 금번 신년회를 마무리하였다.

84 경영회장 윤영원 / 경영총무 이순규

84학번 정기총회 ●●●

84학번은 2022년 11월 9일 3년 만에 고대교우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행사는 고대병원과 이대병원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하며 바이오전문가가 된 전상표 교우의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와 산학연병 혁신창업 주제 발표로 시작하였다. 이어 총회는 감사보고, 회장단 선거, 지역 모임 회장 인사, 등산과 골프회장 인사, 회원 동정, 특이 사항이 있는 교우들의 인사 등 통상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회장은 회장 임기가 코로나 격리 기간과 겹친 윤영원 회장이 연임하기로 결의되었다. 이어서 이상엽 교우(금속84)의 기타와 지난영 교우(영교84)의 노래 공연이 진행되었다. 지난영 교우는 2019년 총회시 공연의 반응이 너무 좋아 명예 경영84교우로 인정되었는데, 후반부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 불러 참여하는 공연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정기총회

84학번 산행행사 (산악대장 : 김홍석) ●●●

김선규, 김홍석, 박태영, 여상렬, 윤귀만, 윤종선, 이순규, 조홍준 8명의 동기들은 2023년 3월 4일 관악산행 행사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약속된 9:30에 참석자 모두 정확히 모여, 사당역에서 출발-관음사-마당바위-서울대를 거쳐 낙성대로 내려왔다. 김홍석 대장은 초보자에게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베테랑급 산악인에게도 불만이 없도록 절묘하게 코스를 설계하



관악산에서

었다. 김홍석 대장은 점심 식사 장소도 사전에 맛있는 곳을 찾아 참석자 모두가 만족했다. 2020년 5월 이후 3년 만에 진행된 산행을 하면서 동기들 간의 소식과 의견도 교환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던 동기는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참석자들은 재개된 84 동기회 행사에 기뻐하며, 6월 행사를 기약하였다.

809 회장 정경모(경영86) / 총무 최윤석(무역87)

두화점 소식 ●●●

“809”모임(4기 집행부 회장=82여용동)은 809 창립한 2010년 6월 17일 이후로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전통적으로 개최해 오던 점심모임 “두화점”모임이 있다. 하지만 코비드19로 인하여 열리지 못하였고, 집합제한이 느슨해진 올해 5월 이후로도 809회장기 학번 대항 골프대회 및 809 골프회장배 흑백타이거전과 같이 골프대회만 개최되어, 비골퍼 회원들의 참여가 어려웠던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 초부터 809 모임의 오프라인 행사 전통을 이어가는 흐름 속에, 11월 15일 “다시 시작하는 두화점!”이라는 제목으로 2년여 만에 열리게 되었다. 고대 경영대 809 모임의 행사는 그 전통만큼이나 행사별 개성과 다양성을 자랑한다. 우선 대형 행사인 골프대회는 봄에 열리는 베어트리파크배 오픈대회(이선용 809 초대회장 영구후원), 여름에는 809 골프회장배 흑백호 대항전(809 골프회장 주관), 가을에는 809 회장기 학번대항 골프대회(809회장 주관)과 같이 각각의 성격이 다른 3번의 대형 골프대회가 있다. 그리고 매월 2번째 화요일에 열리는 점심 모임으로 두화점이 있으며, 신년회 및 송년회는 물론 미술관, 영화관에서 모임을 갖는 809 문화행사와 같이 각 집행부의 개성이 반영된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행사를 809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한 이후로 코비드19라는 장벽에 막혀 이어지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올 여름행사부터 재개 되어 809 모든 회원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던 중, 특히 골프를 치지 않는 회원들에게도 두화점의 재개장 소식은 더욱 반가운 뉴스가 되었다.

금번 열린 2022년 11월 두화점모임에는 학번별 개인별 근황을 나누는 시간과 신입회원 그리고 오랜만에 모임에 나온 회원들의 인사말씀 등으로 행사가 구성되었고 특히 809 5기 회장으로 내정된 86학번 정경모 회원과 그의 든든한 후원자 86학번들이 대거 참석하여서 809의 전통을 더욱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행사장내에 가득하였다.

현임 82학번 여용동 회장은 809 회장이라는 중책을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수락하여준 정경모 회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부탁하였고 사회를 맡은 87학번 최윤석 회원은 신임 정경모 회장의 동기들인 86학번 회원들에게 신임 회장을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선서를 시켜서 큰 웃음을 자아냈다.

사정상 이번 809 회장직을 맡지 못한 84학번과 85학번들은 4기 회장단에서 5기 회장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중요 행사를 한가지씩 맡아서 주관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 약속의 일환으로 11월 15일 두화점은 84학번들이 준비한 행사로 치러지게 되었다. 또한, 운영원 84학번 동기회장은 정경모 신임회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심성의껏 집행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음 행사는 85학번들이 준비하는 2023년 신년회로 1월 18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어서 12월 1일에 열리는 경영대학 교우의 밤 참여를 독려하고 809 구호 제창 및 단체 촬영으로 오랜만에 열리는 두화점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84학번들이 준비한 기념품들을 받아 들고 다시 연말 일상으로 복귀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2022년 다시 시작된 809 골프모임, 두화점 등 전통의 809 회원으로서의 든든함을 품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다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아서 언제나 건강하고 재미있게 809만의 14년째의 전통을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희망해 본다.



두화점 모임

809 신년회 및 5기 집행부 출범식 ●●●

2023년 1월 18일(수) 저녁 고대 교우회관 2층 스캐어홀에서는 힘찬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13년째를 맞이하는 809 모임의 신년회와 5기 집행부 출범을 알리는 행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경영대학 80학번부터 89학번까지 각 학번별로 대표와 임원을 역임했던 교우들이 자리하였고 909 대표와 경영대 교우회에서도 참석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본 행사 개최는 지난 4년 여간 리더십을 발휘해 809 모임을 이끌었던 4기 여용동 회장(82)이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본 행사의 개최를 선언하였고 4기 사무총장을 맡았던 권태우 사무총장(85)이 3년 여간의 경과보고를 하였다.



신년회 및 5기 집행부 출범식

사진을 통해 설명을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 속에서도 2020년 809 10주년 행사를 모임이 시작되면서 1기 회장을 역임했던 이선용 고문의 베어트리파크에서 성대히 이루어진 행사였고, 두 번째는 809 모임은 못했지만 2022년 4월 경영대학 수목행사에 우리 809 회원들이 기금을 모금하여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행사였다. 그리고 2022년 두 번의 골프행사, 작년 말에 재개된 전체 회원 점심 모임인 두화점 행사도 전체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기억된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계획을 위한 4기 집행부 준비모임은 많았지만 그때마다 취소를 해야 했던 아쉬운 행사들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이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임사랑의 마음으로 훌륭한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봉사하기로 결심한 정경모 5기 신입회장(86) 소개와 더불어 5기 집행부 소개 및 2023년 모임의 방향과 행사일정을 소개하였다. 거의 매달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오랜만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려면 809 회원들도 뭔가 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4기 회장단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권태우 사무총장은 활동을 통해 809 모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모임에 새로운 활력과 늘 웃음을 선사한 조명제 골프회장(82)은 모임에 참여하면서 너무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전했고, 여용동 회장은 1년간 맡기로 했던 자리가 4년간 이어지면서 부담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시 한 번 탁월한 리더십으로 쏟아주시는 정성에 감사드린다. 이어 주요 행사시에 크림슨 자켓을 입는 문화를 갖게 된 809 모임의 상장을 살려 박재경(87) 신입회원에게 크림슨 자켓을 입히는 착복식도 거행하였다. 어색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809 문화에 적응하겠노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여용동 회장은 4기에서 함께 활동해준 집행진들과 수목행사에 큰 도움을 준 이선용 고문 및 이종현(86) 회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일일이 이름이 새겨진 고급 골프용품 선물로 증정하였다. 행사에 포도주 50세트를 후원하고 난타 공연단을 섭외한 정경모 회장, 고급 머그컵 40세트 후원한 김상운 회원(81), RE/MAX 골프핀 마커 5개를 후원한 최윤석 사무총장(87), 화장품과 건물물 선물세트 5개를 후원한 조명제 고문, M&M 회사수첩과 달력을 후원한 최철원 회원(88)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부르는 교가제창과 우리모임의 항상 막내 학번인 이강훈 회원(89)의 809구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였다. 교우회관 건너편에 마련된 2차에서는 5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회포와 2023년의 활동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909 신년모임 ●●●

- 일 시 : 2023년 1월 16일(월) 오후 6:30
- 참석자 : 최창규(90), 김민규(91), 최강근(92), 윤선규(92), 윤희도(93), 최길상(93), 김형인(94), 이규원(95), 김민엽(96), 박원태(96), 김연희(96), 김언(97), 김영일(97), 송명수(98), 남광민(99), 김상균(99), 이동영(99) (총17명)

이 날 모임에서 코로나로 3년 동안 활발하게 모이지 못했던 909 모임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의 909 골프대회를 치루기로 계획했고, 91학번 한희선 회원이 909 골프회장을, 96학번 안성수 회원이 골프총무를 맡아주기로 했

다. 상반기 909 골프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능력 있는 한휘선 골프회장이 4팀의 부킹을 잡아주어서 지난번 대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909 골프대회 일정]

· 일시 :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2부

· 장소 : 라비에벨cc

(강원도 춘천 소재, booking by 한휘선 골프회장)

· 참석: 4팀(16명)

· 현재까지 참석 확정 명단 : 최길상, 윤희도, 최창규, 한휘선,

윤선규, 남광민, 최강근, 윤희준,

정현승, 김연희, 김영일, 안성수, 이규원 (총 13명)

· 현재까지 찬조 물품 내역 : 고급 화장품 세트, 고가의 와인 2병, 우승 시상용 상품권, 참석자 전원 지급용 은행사은품, 각종 생활용품 등 1회 대회 이상으로 준비 중이다.

(찬조해주신 모든 프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년모임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 학생대표 김지선(경영21)

일상을 회복중인 KUBS Ladies 활동 – 하반기 다양한 행사 진행 ...

코로나19로 인한 제약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정기 고연전 및 새내기배 움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오프라인으로 재개되었다. KUBS Ladies는 오랜 만에 개최된 오프라인 행사들에 재학생들이 더 즐겁게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 서포트를 진행하였다. 정기 고연전에 박찬현 교수님(경영08)의 후원을 받아 경영대 학생들을 위한 버스 대절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새내기 배움터에 와인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KUBS Ladies에서 진행하는 행사들 역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기 고연전 버스 대절

Dream Concert 행사를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 ...

매학기 진행되는 'Dream Concert'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며 성공적으로 진행을 마쳤다. 이번 드림콘서트는 11월 4일, 현대자동차경영관 B202호에서 진행되었고,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대표이사를 역임중인 최창규 교수님(경영90)의 강연이 있었다. 최근 CPA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가 있었고,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행사가 자신의 진로 결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 나가는 데까지도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KUBS Ladies 창립 10주년기념 행사 개최 및 경영대 교우의 밤에서 '특별상'수상 소식 ...

11월 11일에는 KUBS Ladies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0주년 행사, KUBS Ladies 10th Anniversary를 LG-POSCO 경영관 안영일 홀에서 진행하였다. 약 80여 명의 경영대의 교우님들과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지난 한 해 KUBS Ladies의 활동과 10년간의 발전상을 되짚어보고, 그동안 KUBS Ladies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 KUBS Ladies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서 KUBS Ladies가 올해의 교우상 '특별상'을 받았다. 10주년을 맞이한 해에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 있었다.



경영대 교우의 밤 참석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 클로징 행사 및 2023년 활동 소개 ...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의 클로징 행사를 12월 2일 LG-POSCO 경영관 쿠쿠홀에서 진행하였다. 한 해간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며 2022년 KUBS Ladies 활동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현재는 개강 이벤트(3/2~3/8) 진행과 함께 19기 리크루팅(3/9~3/15)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달혀 있던 여학생휴게실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집행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언제나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KUBS Ladies를 향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od Evening Closing Day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as@kubsas.or.kr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열려



2022학년도 2학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장학증서 수여식이 11월 17일(목) 오후 7시 LG-POSCO경영관 안영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엔 수여자 청평화시장 운영위원회 서광수 감사, KPMG삼정회계법인 한윤성 상무, (주)KCC 윤재업 관리본부장, 애월스테이호텔앤리조트 장치평 대표, 김상용 학장 등 내빈과 경영대학 장학생 6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상용 학장의 인사로 수여식이 시작됐다. 김상용 학장은 “기부자님과 수혜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를 3년 만에 진행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주신 기부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멋지게 성장해 사회와 모교에 환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순서로 장학증서 수여가 이어졌다. 이번 학기에는 △서광수 Dream Scholarship △KPMG삼정회계법인 고려대학교우회 장학금 △엠앤제이문화복지재단 장학금 △장치평 장학금 등 29개 장학금을 통해 133명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600여 명의 기부자들이 마련한 20개의 고경면학 장학금과 KUBS Dream Scholarship 장학금을 통해서는 359명의 학생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기부자와 김상용 학장은 각 장학금의 대표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수여가 모두 끝난 후 수여자와 장학생은 만찬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이후 내빈 인사말, 학생 대표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내빈 인사말에서 서광수 감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건강하라.”는 덕담을 남겼다. 한윤성 상무는 “오늘 이 행사가 기부라는 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학생들에게 “세상을 넓게 바라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장치평 대표는 “모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지성과 해안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원(경영16) 학생대표는 “기부자님들의 지원과 응원 덕분에 심리적·육체적 부담감을 덜어내고 그 자리를 꿈과 다짐으로 채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박연진(경영21) 학생대표는 “기부자님들의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일상에서의 여유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투자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참석한 학생들과 수여자들이 함께 교가를 제창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이 마무리됐다.

경영신문 699호 발췌

2022년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52명, 사립대 1위

외교관후보자 시험과 5급공채 기술직에서도 각각 6명과 12명씩 최종합격



올해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 최종합격자 중 고려대 출신이 사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최근 고시 전문 매체 법률저널이 올해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236명(전국모집 221명, 지역모집 15명)의 신원을 분석한 결과, 고려대는 52명(16.0%)의 행정고시 합격자를 내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려대 합격자 수는 지난해 33명(13.95%)보다 무려 19명이나 증가하였다.

또한 고려대는 2022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도 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고려대는 지난해(7명)보다 1명이 준 6명(15.0%)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연세대와 공동 2위를 기록하였다. 이화여대는 올해 4명(10.0%)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성균관대와 한국외대가 각 3명(7.5%)으로 공동 5위에 랭크됐고 법률저널은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는 2022년도 5급 공채 기술직(구. 기술고시)에서도 12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특히, 이번 2022년도 5급 공채 기술고시 전산직과 토목직, 환경직의 수석의 영예는 각각 본교 컴퓨터공학과 김현학, 건축사회환경공학

부 허소담, 지구환경과학과 박상현에게 돌아갔다.

2022년 행정고시 합격자(행정직) 가운데 주요 직렬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지역모집 포함) 136명 중 고려대가 33명(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대 25명(18.4%), 연세대 20명(14.7%), 성균관대 18명(13.2%), 한양대 9명(6.6%) 등의 순이었다.

69명을 선발한 재경직에서는 서울대가 31명으로 재경직 전체의 44.9%를 차지하고 이어 연세대가 12명(17.4%)으로 뒤를 이었으며 고려대 7명(10.1%), 성균관대 4명(5.8%), 한양대 3명(4.3%) 등을 기록하였다. 국제통상직은 11명 중 고려대가 5명(45.5%)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으며 이어 연세대가 3명(27.3%)으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대는 1명이었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올해 행정고시 합격자(행정직)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들 상위 3개 대학의 쓸림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SKY 대학의 출신은 총 147명인 62.3%로 지난해(154명, 64.7%)보다 2.4%포인트 감소했다. 올해 서울대가 부진하면서 이들 대학의 편중이 완화됐다고 보도했다.

www.korea.ac.kr

2022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2.1.1~2022.12.31 기준

<500만원>

57 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5 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65 학번	허광수	자문위원
67 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72 학번	구자열	자문위원
72 학번	김 윤	부회장
74 학번	송명호	부회장
74 학번	정몽원	명예회장
75 학번	허경수	부회장
76 학번	이 범	부회장
77 학번	이만득	부회장
80 학번	정몽규	부회장
88 학번	최철원	부회장
(1200만원)		
89 학번	정의선	부회장

<300만원>

80 학번	이선웅	부회장
81 학번	박정원	부회장
92 학번	김지용	부회장

<100만원>

64 학번	강동식	부회장
65 학번	김신경	자문위원
66 학번	박성훈	자문위원
66 학번	최용순	자문위원
66 학번	황병조	자문위원
70 학번	김광식	부회장
70 학번	이창희	부회장
70 학번	한대곤	부회장
72 학번	양승은	부회장
73 학번	정기련	부회장
74 학번	강호갑	부회장
77 학번	이철우	부회장
78 학번	이영호	부회장
79 학번	김 정	부회장
80 학번	변대현	부회장
80 학번	정학현	부회장
81 학번	송재현	상임이사
82 학번	여용동	부회장
82 학번	최준영	부회장
85 학번	황영달	감사
87 학번	홍중성	부회장
88 학번	전찬혁	부회장
89 학번	이동섭	부회장
90 학번	송승민	부회장
90 학번	최창규	부회장

90 학번	한상일	감사
92 학번	조성욱	감사
94 학번	김형인	부회장
	(익명)	

<50만원>

55 학번	유상욱	자문위원
59 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 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62 학번	최부웅	상임이사
63 학번	장신규	자문위원
66 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75 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8 학번	손무성	상임이사
78 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79 학번	서학석	상임이사
79 학번	이상현	상임이사
79 학번	이주배	상임이사
79 학번	정몽진	상임이사
80 학번	김용현	상임이사
81 학번	김영민	상임이사
81 학번	홍홍석	상임이사
83 학번	박성진	상임이사
84 학번	배형근	상임이사
85 학번	김정호	상임이사
86 학번	정서진	상임이사
93 학번	강준환	상임이사

<30만원>

67 학번	신동언	상임이사
74 학번	김동선	상임이사
79 학번	추경호	상임이사
86 학번	정경모	상임이사
93 학번	최길상	상임이사

<20만원>

63 학번	전현찬	상임이사
69 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69 학번	이재선	상임이사
71 학번	이세형	상임이사
71 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72 학번	김문기	상임이사
73 학번	신준식	상임이사
92 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10만원>

이사			
53 학번	이호용		
54 학번	김진배		
55 학번	김기인		
58 학번	함명돈		
59 학번	강창석	권상진	이차욱
60 학번	김선휘	이웅휘	
61 학번	김길남	박순자	성영일 채규학
62 학번	송준일	정준수	
63 학번	김형덕	이승철	이영무
64 학번	김용운	김현희	류재전 정제성
65 학번	이창윤	최병일	
66 학번	김홍재	신진철	신현욱 양치수
	임혁기		
67 학번	김용동		
68 학번	왕세창		
69 학번	맹인재	신현웅	이정주 임채홍
	조현룡		
70 학번	이인택		
71 학번	권광순	최광균	최윤도
72 학번	강태준	문덕인	박만우 이원창
73 학번	김순배	현기춘	
74 학번	김승길	윤명상	홍영호
75 학번	김우진		
76 학번	김덕만	배유현	서윤덕 양병수
	이법호	이원직	장진원 조구휘
77 학번	이완재	이용모	
78 학번	경석현	류한호	박재호 박주병
	신학기	정동창	조경영
79 학번	김덕년	김원환	김진호 민경섭
	박진호	서동린	안성경 정춘돌
80 학번	김종국	김준경	서 정 정백조
81 학번	김재범	박성철	박지수 유한수
	이상혁	이훈복	
82 학번	장태수		
84 학번	김준호	위승훈	윤귀만 이순규
	최병권		
85 학번	구준서	임 욱	정병욱
86 학번	양근섭	오인환	정종갑 황택현
88 학번	박동진		
89 학번	김평국		
93 학번	염규상		
96 학번	주민근		

일반교우 <3만원>

51 학번	전윤자
52 학번	김영섭

53 학번	엄기정			
54 학번	김동진	이종은	이종환	조태규
	조해연	태호팔		
55 학번	고재균	김경수	김관수	김영식
	김정래	김정식	김종은	남치현
	박래균	박상호	신문철	신범현
	신정식	윤희표	이득주	이순용
	이승재	이형구	정삼택	
56 학번	김지영	백공용	신명철	윤길림
	이기홍	이연상	조해균	
57 학번	구인본	김문석	김성균	김재곤
	이병길	정기원	정우중	
58 학번	남태현	박성업	사윤진	오덕환
	윤영연	이종득	이종철	천정호
	최신일	홍종익		
59 학번	강해홍	권병용	김무남	김종길
	김주환	노규채	박형문	변홍주
	송운한	송창순	양재관	오의희
	윤석문	이광조	이기홍	이영희
	이윤제	이응두	이창용	임종환
	(11만원)			
	한순영	홍윤근		
60 학번	곽병화	구자욱	김광평	김만용
	김삼경	김상호	김용동	김형자
	노경식	노수범	민영홍	성윤경
	소동섭	신준호	윤재순	이일구
	조시연	최덕형	최익호	하정일
	한국연	한기정		
61 학번	김도민	김소현	김윤장	김택원
	김홍곤	김활자	박광동	박무용
	박성현	박엽업	박윤서	박진자
	박청자	박화신	신현성	안희민
	엄무성	오영희	왕규철	유기현
	윤영범	이경순	이근창	이봉현
	이 완	이원태	이학주	장경작
	전규수	전춘옥	조 경	채갑병
	채창현	한종구	황인강	
62 학번	구자웅	권영진	김광태	김세영
	김인채	김종순	김종진	김한중
		(10만원)		
	김효명	마재현	배영일	백호휘
	석영부	안기정	엄종대	염직환
		(13만원)	(10만원)	
	오무환	유병하	윤재환	윤종철
	이순영	이웅구	이인영	이호웅
	정우진	조승수	한상욱	
63 학번	김소부	김시균	김일웅	김지창
	남 훈	박종일	백선기	오소일
	육규석	윤익순	이천우	임휘련
	전남복	정완영	차금자	한건수

	황공석			
64 학번	고병선	김동훈	김선욱	김순배
	김춘식	민선용	박덕배	박중수
	박재길	안덕수	유영식	유성준
	이경희	이태경	이항선	이형탁
	조종래	허석도	현봉길	홍현묵
	황석희			
65 학번	김정배	박태인	이경찬	이정수
66 학번	김명진	김웅한	김진하	박민규
	박용혁	성순환	신경조	양정국
	염수열	오창석	우강용	유행열
	이판철	장철기	정 발	정순달
	정연동	조대현		
67 학번	김덕수	신병창	윤정섭	이계남
	이장운	조용건	최종철	한기석
	한동석	한상규		
68 학번	신동원	이차복		
69 학번	곽태영	김 신	김영호	김은영
	오세원	장용태	정영목	정택모
		(5만원)		
	조대승	최용제		
70 학번	강명구	박병천	제 철	
71 학번	김기동	김영규	김재원	박용우
	박장훈	송창열	윤주현	최충길
	허진영	홍승철		
72 학번	고재영	권완상	김성욱	김영만
	김영식	김윤수	김인경	김종현
	류병기	박동원	박홍국	유대준
	장석산	전종환	정우성	조승식
	최원철	황선일	황순기	
73 학번	김교웅	손대정	홍문순	
74 학번	구본량	김주화	박영식	박용운
	정 영			
75 학번	김우태	김호섭	김희환	박세현
76 학번	권순도	김성수	이봉용	이일표
77 학번	김대철	왕조현	이찬근	임동하
	한광섭			
78 학번	강석현	김병수	김승중	김일웅
	나금주	박경준	박수영	박원현
	변희원	안승배	안진철	유승식
	윤면식	이강석	이원호	이주용
	이한구	이홍영	정세종	차선녕
79 학번	강창용	권홍국	김영관	김홍곤
	류병완	신현길	이성훈	정운창
	(6만원)			
	지수용	황보평		
80 학번	김광림	김병조	김태현	최유성

81 학번	김신철	김용운	김한근	나상진
	변준영	임문홍	정원중	
82 학번	김지환	김태진	윤준섭	이성우
	최인섭			
83 학번	곽병현	김윤호	김정욱	윤여실
	이재용	조영식		
84 학번	강운구	강학수	김민권	김병남
	김홍석	박광구	박병성	서동찬
	윤창섭	이창구	이해진	정상한
85 학번	강황배	기승도	김상태	박승하
	신강영	신호섭	심성도	
86 학번	강신재	김석영	김좌영	서동욱
	유재열	표민수	황인하	
87 학번	김종길	유현규	이덕희	하범중
88 학번	김삼덕	이상호	하중문	
89 학번	고경의	박병영	서계원	이윤석
				(10만원)
	정운근			
90 학번	강승모	김형기	민준선	염창열
	오선근	이은기	장원석	
91 학번	윤성환	조성일		
92 학번	김대형	김재형	김재홍	서동휘
93 학번	김도희	박홍주	오명일	윤성재
94 학번	김도윤	김태정	박병도	박형현
	방상호	서경덕	서동희	여종욱
95 학번	박종혁	신미혜	이규열	이희윤
	전영철	지재홍	최성훈	
96 학번	김하현	박대웅	백웅조	손희중
	이명준	이준희		
97 학번	강민수			
98 학번	이재등	이진상	최종민	
00 학번	박 진			
02 학번	박종현	손현선	이종광	
03 학번	김정환C	김현석	오병원	추창화
	(10만원)			
	홍지선			
04 학번	김형태	송 진		
05 학번	강종범	박종환	이근호	이지현
	이현호			
06 학번	정재욱			
07 학번	심윤보	정대호		
		(6만원)		
08 학번	신재호			
09 학번	송명근	윤수지	전태희	
10 학번	김도형	김민정	장세명	
11 학번	송웅기	한은경		
12 학번	황지민			
14 학번	이진원			

학번별 분담금	
62 학번	500,000
64 학번	500,000
66 학번	500,000
69 학번	500,000
70 학번	1,000,000
경영74학번	750,000
76 학번	1,000,000

77 학번	1,000,000
78 학번	1,000,000
83 학번	1,000,000
89 학번	2,000,000

평생회비<30만원>		
55 학번	황창규	300,000
75 학번	황성철	300,000

77 학번	김형일	300,000
78 학번	권혜경	300,000
79 학번	양상문	300,000
80 학번	조성호	500,000
81 학번	전문규	300,000
83 학번	백승철	300,000

발전기금	
62학번 동기회(김종순 교우)에서 83만원 발전기금 납부	

2023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3.1.1~2023.3.27 기준

100만원		
64 학번	강동식	부회장
72 학번	양승은	부회장
97 학번	심 건	부회장

<10만원>		
이사		
63 학번	이영무	
일반교우 <3만원>		
55 학번	남치현	
58 학번	박성업	
59 학번	권병용	김종길
60 학번	김동선	
61 학번	이근창	이재영 황인강
62 학번	한상욱	
63 학번	김시균 (10만원)	정완영
64 학번	홍현묵	
65 학번	이경찬	
66 학번	박민규	
72 학번	황선일	

75 학번	김 훈			
78 학번	김일용	박수영	신학기	조항웅
88 학번	피승호			
91 학번	이상수			
96 학번	이명준			
99 학번	윤창영			
02 학번	전현석			
07 학번	정대호 (9만원)			
09 학번	서수양	정석현		

학번별 분담금	
89 학번	1,000,000
평생회비	
79 학번	서종산 300,000

감/사/합/니/다.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

입금계좌

 KEB 하나은행 391 - 910009 - 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Global 30위 경영대학과 교우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

회비 및 분담금
납부현황

일반연회비

달성

100.3%

목표 16,000,000원

실적 16,050,000원

기별분담금

달성

43.8%%

목표 20,000,000원

실적 8,750,000원

임원분담금

달성

77.8%

목표 164,000,000원

실적 127,600,000원

TOTAL

2022년 12월 31일 기준

목표 200,000,000원

실적 152,400,000원



달성

76.2%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GS그룹이 응원합니다

따뜻함은 나누고 에너지는 더하고

GS칼텍스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서부터 단열, 창호,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까지 섬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는 무한 에너지,
GS칼텍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I am
your
Energy

나눔수록 거지는
긍정에너지



E1이 펼치고 모두가 누리는 E10 | GREEN 미래

친환경 LPG부터 수소, 전기, 태양광, 풍력까지
E1이 환경과 에너지가 친구되는 세상을 펼쳐갑니다



한라그룹의 새 이름



***Anytime
Anywhere***



MIGHT & MAIN(주)

사장 최 철 원 (무역88)